

#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

##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제주도 민요 연구 자료들을 연대별로 구분하여 알기쉽게 해제하고 연구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삼았다.
2. 시기는 1920년대에서 1993년까지의 자료를 섭렵하였으며 필자의 확인자료에 한했다.
3. 저서의 경우는 저자명, 책명, 출판지, 출판사, 연대, 기타사항의 순으로 기재하고, 논문인 경우는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출판지, 학회명, 출판연대) 권수 순서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내용이 동일한 논문인 경우는 한쪽을 택했다.

金思燁 · 崔常壽 · 方鐘鉉 공편. 『朝鮮民謠集成』. 서울:正音社, 1948.

고교형, “民謠에 現한 濟州의 女”, 『朝鮮』(京城:朝鮮總督府, 1932), 통권 202호, 12월호.

4.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해제분량의 정도차이는 있으나 가능한한 형평을 기하려고 했다.
5. 외국어 논문인 경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여 해제에 임했다.
6. 미확인 자료는 계속 수집하여 보완 하고자 한다.

## 1.1920-1950년대

高橋亨, “朝鮮의 民謠”, 『朝鮮』(京城:朝鮮總督府, 1932), 통권 201호.

高橋亨은 일본인으로 경성제대에 와서 근무하면서 1929년에 제주도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조선의 민요를 다루면서 제주도 민요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다. 민요는 <詩經>이나 <萬葉集>의 노래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런 민요의 특성을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대별하고 있기도 하다. 곧 민요의 소극적 의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동요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 만의 노래가 아니다.
2. 특정시인이 만든 노래는 아니다.
3. 기생이나 직업적 가수가 부른 가요 만은 아니다.
4. 다른 지방에서 수입되어져서 불려지는 유행가는 아니다.
5. 지식 계급에서 행해지는 노래가 아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는 “어느지역, 혹은 어느 때에, 누구에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가요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조선민요의 寶庫이며, 과거에 제주도는 조선에 부속된 영역이 아니라 부용국이었고, 아직도 옛날의 풍속을 보존하고 있으며, 남녀관계, 의복제도, 가옥의 구조, 무속의례, 사당신 등이 구태연하게 남아있는 점에서 고대의 민요를 대부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高橋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의 女”, 『朝鮮』(京城:朝鮮總督府, 1932), 통권 202호, 12월호.

이 논문은 저자의 단행본 <濟州島의 民謠>에도 실려있다. 결국 단행본을 묶을 때 이 논문을 함께 실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민요의 수집 역사를 더듬고 있으며, 민요가 역사적인 배경의 산물이라고 보았을 때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역사를 명칭과 함께 고찰하고 있다. 예컨대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의 사료의 기록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풍속을 살피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여기에서 필자는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열거하고 감상하고 있는 데, 船歌, 양태가, 망건가, 해녀가를 소개하고 특히 뗏돌방아노래 중에서 그 뜻이 깊고 절창인 노래들을 감상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시집살이에 대한 노래 중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을 그린 것과, 첩에 관한 것 등 우울한 노래(陰의 노래)들과, 양반지향의 노래나 京城지향,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인 밝은 노래(陽의 노래)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또 이어도에 대한 설명도 재미있고 설화적이기는 하나 다소 가공적인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민요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홍의랑의 의녀의 이야기를 <정헌영해처감록>과 <조선왕조실록>, 구전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조사, 『韓國民謠集VI』(서울 :집문당), 1981.

이 조사에서는 1912년 『俚謠俚諺及通俗的讀物等調査』를 제1부로 하고 1933년의 『民謠調査』와 1935년 『鄉土民謠及舞踊』을 제2부로 했다. 이 조사는 간접적인 조사로서 중앙에서 도로, 다시 군수를 경유해서 각 보통학교장에게, 시달받은 측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위로 상납하는 소위 상명하달식의 방법으로 중앙에서 집대성 했다.

자료수집의 목적은 우선 정책자료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市山이 언급한 데로 조선총독부에서 출판코자 정리하다가 뜻을 못보고 그냥 서류철로 남아 있었던 듯 싶다. 이 자료는 임동권에 의해서 『韓國民謠集』 제6권에 실려 소개되고 있다.

제주도에 관한 조사는 전라남도 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제주공립농업학교와 대정군, 정의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각 군에서 보고된 자료들은 도에서 정서하는 과정에서 選別, 削除, 廢棄, 改削, 添加 등이 있을 수 있다. 반일적이거나 반정부적일 수 있는 자료가 상관의 문책의 두려움으로 수집된 원형의 자료가 보존되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내포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는 1912년도 분 중에 제주공립학교 수집의 타곡가(한6-423)와 토역가(한6-424), 정의군에서 수집한 태평가(한6,387-388), 타맥가(한6-389)등은 제목이 붙어 있고 대정군에서 수집한 노래 (한6, 384-386)에는 제목이 없다. 여기에 실린 노래 역시 제주어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수집된 자료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은 수집자의 민요에 대한 관심이나 수집이 능동적이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東京：第一書房, 1933.**

김소운은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이 투고한 민요의 가사를 수집하였다. 이것은 국관 700면의 장대한 저술로 2370수의 민요가 수록되어 있다. 1929년에 일어난 <朝鮮民謠集>을 태문관에서 펴냈으며, 1940년에는 이 책을 바탕으로 <朝鮮童謠選>을 박문서관에서, 1941년에는 일어난 <朝鮮民謠集>을 新潮社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역별로 수집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자료는 전라남도 편에 소속시켜서 158면에서 161(번호600-611)면에 12수가 실려있다. 자장가 1편, 자는망에 1편, 파랑새 1편, 여대복송 1편, 침마침마 1편, 도리강산 1편, 속요 2편은 제보자가 추자면 신양리 양태교라고 되어있는데, 추자도에서 수집한 것이어서 제주도 민요와는 상당히 다르며, 쏘릿싸기 1편, 수요 2편, 자장가 1편은 제주도 신우면 금덕리 강희선 제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불리는 제주도 민요이다.

**金岸曙外, “제 고장서 듣는 民謠 情調 -김능인의 제주도의 멜로디-” 『三千里』(서울:삼천리사, 1939), 8월호.**

『三千里』 잡지에서 편집자의 부탁으로 쓰여진 것 같다. 제주도에 한번 와서 수집했던 감상을 바탕으로 쓰고 있다. 제주도 민요의 특색은 “흙냄새가 나고 자연생장적이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수로를 통한 이별의 한과 원망이 맺어진 것이 이어도로 표출되고 또 지역적인 특성으로 자급자족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부지런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요는 아낙들의 피와 눈물이 맺혀있는 노래라고 하고 이어도 후렴과, 등그대당실로 시작되는 오돌또기로 볼 수 있는 노래 약간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가 제주도 출신이 아닌 때문에 제주도 민요에 대한 아주 피상적인 이해가 있었던 듯하다.

**康奉玉, “濟州島의 民謠 五十首”, 『개벽』, 제32호,부록 pp.39-48.**

부제 ‘맺돌가는 女子들의 주고받는 노래’가 보여주듯이 맺돌노래 50수를 소개하고 감상하였다. 맺돌노래는 두 사람 혹은 한 사람이 맺돌을 갈면서 한 사람이 노래를 부

르면 나머지는 코러스를 부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고체적인 어조와 방언이 많음으로서 필자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하나의 각편을 나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 )를 사용하여 어석을 달고 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민요가 대부분이어서 전승의 끈끈함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음보에 따른 표기도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사민요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 데, 시집살이노래로 육지부의 노래가 유입된 흔적이 보이는 노래이다.

林和. 『朝鮮民謠選』(이재욱 해제). 京城:學藝社, 1939년(소화14년). 265면.

제주도 민요의 수집과 분류는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林和 편 의 자료와 이재욱의 논문 <朝鮮民謠序說>이 실려 있어서 일반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전국의 민요를 수집하고 그 분류는 서정가, 결혼가정에 관한 가요, 사친가, 자탄가, 서경가, 풍유가, 노동가요, 잡요로 설정하여 분류하고 특별부록으로 제주도의 민요를 처리하여 실고 있다. 그 종류는 방앗노래와 가랫노래(1-186)인데 의미단락을 한 각편으로 삼아 미시적인 각편 구분을 하고 있으며 踏田歌(1-2), 打穀歌(1-7), 除草歌(1-10), 海女歌(1-17), 船歌(1-15), 埋葬歌(1-15), 자장歌(1-3) 등도 있다. 특히 타곡가는 서귀포, 제초가는 모슬포, 자장가는 서귀포라는 수집지역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원가사 표기를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제보자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민요를 제법 많은 분량을 수집했다. 특히 본토의 민요에 비해서 그 특이성을 인정한 바 분류를 시도하지 않고 따로 부록으로 처리한 것이 이해가 된다. 자료들은 지금도 전해지는 노래가 대부분 엮보여 전승의 견인력을 실감케 한다.

이재욱의 논문 <조선민요서설>은 (1)민요의 의의와 가치, (2)조선민요의 사적고찰, (3)조선민요의 특징, (4)조선민요와 당면문제로 구분하여 민요의 개론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민요의 수집연구의 급선무를 들고 있다. 제주도 민요의 수집이나 이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金思燁 · 崔常壽 · 方鐘鉉 공편. 『朝鮮民謠集成』. 서울:正音社, 1948.

이 자료집의 특징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개인적으로 수집해 온 자료들을 광복이후 3인이 공동으로 모아서 펴낸 자료집으로 제주도 민요편 만을 독립하여 지역적 분류를 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김사엽과 방종현의 序文, 최상수의 拔文이 있는데 특히 제주도 자료들은 방종현이 대부분 수집한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제주도 민요는 십수년전 조천에서 그 당시 80을 넘어선 한 노파에게서 수집한 것이라고 한다. 제3편으로 나누어 제1편은 구전민요, 제2편은 영남의 내방가사, 제3편에 제주도 민요를 수록하고 있다.

“제주도 민요인 경우는 육지의 그것과는 시형, 어휘, 어조, 정감등이 다르고, 지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아 따로 분류했다”고 밝히고 있듯이 육지부의 민요에 비해 제주도 민요의 특이성을 인정하고 있다. 구전 민요의 분류에 있어서는 우선 가사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고 다음으로는 기능에 의한 분류를 해서 일관성을 상실한 감이 없지 않으나, 채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류기준이라고 범례에서 밝히

고 있다.

분류를 보면 우선 1차적인 분류는 창자에 의한 분류이며, 부요, 남녀공용, 남요, 동요, 기타요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부요에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서 (1)결혼요, (2)가정불화, (3)연정요, (4)노동요, (5)사친가, (6)永物 · 敍事, (7)특수가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고위민의 분류법(『朝鮮春秋』 1941년, 2월호)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분류기준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있었던 듯 싶고, 기준설정이 다소 통일성이 있는 분류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그 성과라 할 것이다.

제주도 민요는 가능한 한 창자의 발음에 가깝게 기록하려고 했고, 특수한 방언인 경우는 간간히 加註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분류없이 의미단락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민요의 요종별 교섭을 인식한 것이 아닐까 한다.

#### 崔永日, “濟州島의 民謠”, 『崇實大學報』(서울:崇實大, 1956), 통권 제2호.

피난지에서 제주도의 방언과 민요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오돌또기 1편, 검질매는 소리 1편, 시집살이 5편, 맷돌가는 소리 70편이 의미단락 별로 정리 되고 있다. 그리고 김태준의 수집 소장이던 제주도의 민요 자료로, 학예사에서 1939년에 『조선민요선』으로 간행되었던 부분을 다시 병기하여 싣고 있다. 요종으로는 방엿노래와 가랫노래 186수와 답전가 2수, 타곡가 7수, 제초가 10수, 해녀가 17수, 선가 15수, 매장가 15수, 자장가 3수 등이다. 간혹 채집지가 표기되기도 하며 맷돌노래의 대부분의 제보자는 조친의 宋相煥여사로 71세라고 적혀있다. 제주어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석이 없다.

#### 姜時宅, “濟州島 民謠의 特色”, 『濟大學報』(제주:제주대학교호국단, 1957), 창간호.

필자는 金思燁 외 『朝鮮民謠集成』에 실린 제주도 민요를 바탕으로 민요의 형식과 내용, 특색을 살폈다. 형식으로는 45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의 민요가 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44조 역시 육지부나 제주민요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나 45조에 비해서는 작다. 33조도 많이 나타나고 특히 부정형의 것들도 많다.

내용으로는 맷돌노래에서의 ‘이허도’ 후렴이 민간에서는 슬픔으로 상징되고, 잠수가 나타나는 노동의 고달픔, 방아노래의 자신에 대한 비애, 김매는 노래의 기능성, 밭밍기노래에서 제주도만의 농사법의 특성, 자장가 중에 나타나는 ‘왕이자랑’에 대해 그리고 원정가나 팔자노래, 시집살이, 첩노래, 큰애기풀이, 오돌또기 등을 들고 있다.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그 특색을 살펴보면 먼저 형식적인 특징으로 45조가 많은 것은 제주부녀자들의 노동박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있으며,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부요의 질·양적인 우세와 노동의 양적인 우세로 나타나 노동요가 많고, ‘이어도’의 애절함과 무용요의 결여를 들고 있다.

#### 崔鶴璇, “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 『現代文學』(서울:現代文學社, 1958), 통권 48호, 12월호.

해녀노래 각편의 예를 들고 주를 달아 감상을 했다. 해녀들의 정서를 표출한 노래들이 나타난다. 현장에 대한 연구가 없이 분석이 이루어진 느낌이 없지 않으나 해녀들의

물질 작업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전개되는 그들의 삶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 그래서 해녀노래의 정서와 내용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글이다.

**金永三編. 『濟州民謠集』. 한용주 蒐集. 서울:중앙문화사, 1958. 188면.**

한용주가 수집하고 김영삼이 편했다. 자료의 편집에 있어서 기능별로 노래를 상위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서 하위분류로 노래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제목은 고정되어 불려지는 것은 그대로 취하고 그외의 것은 맨 앞에 나타나는 구절이나 혹은 특정대목에 의해서 편자의 자의에 의해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인정되는 ‘오돌또기’를 악보와 더불어서 실고 있다

가능한 데로 제주어 표기를 살리려고 했으나, 「」(아래 아) 표기나 고어 표기를 하지 않았고, 노래에 대한 조사지역이나 제보자, 구연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방언이나 낱말의 풀이 중 여러 확설이 있는 것 중에서 확실한 것만을 주를 달아 노래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각편설정에 있어서 모방작이라고 생각되는 것, 허다히 많은것 등은 제외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모았다. 그리고 편의 구분은 발생근거에 따랐다고 한다. 이는 구연상황을 고려한 점으로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닌 각편을 제보자가 어느것을 선정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민요의 형식상의 특징은 4:5조 혹은 3:4조이며 내용상의 특성을 “허위와 안일의 육지부의 민요에 비해서 남국적인 해양풍취에서 빚어지는 섬의 독특성, 격정적이고 낭만적이며, 배타적이며 독선적이기까지 하고 자립적이며 진취적이다”라고 했다. 또한 몽고나 외국의 민요와의 교섭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이 자료집은 그 분류가 지금까지의 자료집에 비해서 크게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나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 특히 노동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 비기능적인 항목설정으로 시집살이나, 첩요, 팔자, 과부노래의 설정은 2차적인 분류로 택할 만한 기준설정이며 가장 우선하는 것이다.

**양홍식 · 오태용 편. 『제주향토기』. 프린트판, 1958.**

제주 태생의 두 편자가 향토 제주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판의 역할을 목적으로 만든 등사본 책자이다. 제주에 관한 지형이나 기후, 명승고적, 풍속 등을 다루면서 구비문학인 전설과 민요, 신방가(神房歌), 또 교육과 신앙, 식물, 산업, 교통통신 등을 다루어 제주도를 개관하고 있다.

이 책의 제7장 ‘풍부한 민요’ 항에서 제주도 민요는 ‘일반민중 사이에 생겨나서 자연히 세련되어 그 생활감정을 소박하게 반영하는 가요’라고 하면서 모집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수록된 요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방아노래(대가) 5편과 멧돌노래(杵歌) 8편, 김매는 노래(제초가) 6편, 자장가 6편, 해녀가 9편, 고기잡는노래(어선가) 5편, 농부가 2편, 타작노래(탈곡가) 2편, 발 불리는소리(답전가) 4편, 상여소리(장송가) 3편, 달고질노래 5편이 실려있다. 이외에도 가마귀, 우럭, 꿩, 매미잡이 노래인 동요들과 조종, 명산, 세월, 친구생각, 방아타령, 질군악, 오돌또기, 사랑가 등의 창민요와 생활고, 모자의 애정, 시집살이요, 장기가, 고대왕가, 기괴문답가, 수수께끼, 담배가, 명물타령, 양태와 불미(불매)노래, 과부의 노래인 12월가를 실고

있다. 고대왕가는 자장가의 일부로 보이며, 기괴문답가는 문답체의 꼬리따기이다.

**진성기. 『제주도민요』(제1집). 제주:희망프린트사, 1958.**

저자가 제주대학교 2학년 재학시 엮은 자료집이다. 제주섬을 ‘민요의 섬’이라 자각하고 직접 수집을 하고 부류별로 분류를 시도 해서 300여수를 묶어낸 것이다. 매수마다 번호를 붙여서 수를 구분하고 가창자의 발음에 따르려는 흔적이 있다. 특히 제주방언이 일률적인 통일을 가져오지 못한 점은 아직 제주어 표기법이 마련되지 못한 입장에서였고, 그럼에도 특히 「ㅣ」와 「ㅚ」의 중간음 「ㅚ」(6: ㅚ..섯)을 사용한 것이 눈에 드러난다. 제보자나 수집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가창자의 노래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육지부의 독자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방언 등은 낱말풀이가 따르고 있음도 볼 수 있다.

**秦聖麒. 『濟州島民謠』(제2집). 제주:중앙미술사 프린트부, 1958.**

제1집에 이어서 다시 800여수의 자료를 묶었다. 자서에서 “부녀자들의 영탄하고 하소연하는 노래가 으뜸으로 많아서 낡은 사회제도에 얽매인 부녀자들의 쓰라림과 고뇌를 토로하여 표현해버린 민요는 생활고에 대한 신음이며, 스스로를 달래고 힘든 구려는 구슬픈 노력의 결정이라고 하고싶도록 처절한 애월에 가득찬 정조이다”라고 했다.

대부분의 체제가 제1집과 마찬가지로 제1집에서 맺돌노래로 묶었던 것을 그 정서를 중시하여 「과부노래」, 「시집살이노래」, 「원정노래」, 「팔자노래」, 「첩노래」등 내용별로 재분류한 점이 특징이다.

**秦聖麒. 『濟州島民謠』(제3집). 제주:성문프린트사, 1958.**

제2집의 후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별로 분류한 후 첫 어절을 이용하여 분류표지를 하고 있는데, 제1부의 사친노래에서 ‘근심재완 아니든 좁은’으로 시작되는 노래인 경우 그와 같이 표기한 점이 특징이다. 해녀노래, 동요편, 과부노래, 팔자노래, 타령편, 시집살이 노래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능상 혹은 내용상의 혼합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래마다 채집지역을 밝히고 있고, 난해한 어구가 나올 때마다 주석을 달고있다. 제주어에 대한 표기법의 고려와 더불어 가능한 정확한 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들이라 하겠다.

金岸曙外, “제 고장서 듣는 民謠 情調 -김능인의 제주도의 멜로디-” 『三千里』, 1939. 8.

『삼천리』 잡지에서 편집자의 부탁으로 쓰여진 것 같다. 제주도에 한번 와서 수집했던 감상을 바탕으로 쓰고 있다. 제주도 민요의 특색은 “흠냄새가 나고 자연생장적이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수로를 통한 이별의 한과 원망이 맺어진 것이 이어도로 표출되고 또 지역적인 특성으로 자급자족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요는 아낙들의 피와 땀물이 맺혀있는 노래라고하고 이어도후렴과 둥그대당실로 시작되는 오돌또기로 볼수있는 노래 약간을 언급하고 있다. 제주도 출신이 아닌 때문에 제주도 민요에 대한 아주 피상적인 이해가 있었던 듯하다.

강봉옥, “제주도 민요 50수-맺돌가는 여자들의 노래-” 『개벽』 32호, 부록 pp.39-48.

맺돌노래 50수를 소개하고 감상하였다. 맺돌노래는 두사람 혹은 삼사람이 한사람이 노를 부르면 나머지는 코러스를 부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고체적인 어조와 방언이 많음으로서 필자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하나의 각편을 나열하고 해서이 어려운 부분은( )를 사용하여 어석을 하고 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민요가 대부분이어서 전승의 견인력을 찾을 수 있다.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음보에 따른 표기도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사민요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 데 시집살이노래로 육지부의 노래가 유입된 흔적도 보이는 노래가 소개되고 있다.

高橋亨, “朝鮮의 民謠” 『朝鮮』 통권201호, 朝鮮總督府, 1932.

전체적으로 조선의 민요를 다루면서 제주도 민요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었다. 민요는 『詩經』이나 『萬葉集』과 같은 존재이면서 민요를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그 특성을 들고있다. 곧 소극적으로는

1. 동요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 만의 노래가 아니다.
2. 특정시인이 만든 노래는 아니다.
3. 기생이나 직업적 가수가 부른 가요 만은 아니다.
4. 다른 지방에서 수입되어져서 불려지는 유행가는 아니다.
5. 지식 계급에서 행해지는 노래가 아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는

어느지역, 혹은 어느 때에 , 누구에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가요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주도는 조선민요의 보고이며, 그것은 조선의 부속한 영역이 아니라 부용국이었고, 아직도 옛날의 풍속을 보존하고 있고, 남녀관계, 의복제도, 가옥의 구조, 무속의례, 사당신등이 구태연하게 남아있는 집에서 아직도 민요 역시 대부분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高橋亨, “民謠에 現한 濟州의 女”, 『朝鮮』 202호, 朝鮮總督府, 1932, 12.

이 논문은 『濟州島の 民謠』 단행본에도 실려있다. 논문으로 실었던 것을 단행본을 묶을 때 같이 실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민요의 수집의 역사를 더듬고 있으며, 민요가 역사적인 배경의 산물이라고 보았을 때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역사를 명칭과 함께 , 고려의 『麗史』, 이조실록 등 사료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풍속을 살폈다. 여기서는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열거하고 감상하고 있는 데, 船歌, 양태가, 망건가, 해녀가, 를 소개하고 특히 맺돌방아노래 중에서 아주 그 뜻이 깊고 절창인 노래들을 감상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시집살이에 대한 노래중,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을 그린 것과, 첩에 관한 것, 등 우울한 노

래(음의 노래)들과, 양반지향의 노래나 경성지향,사랑하는 님을 그리워 하는 노래인 밝은 노래(양의 노래)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또 이어도에 대한 설명도 재미있고 설화적이기는 하나 다소 가공적이다.

민요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홍의량의 의녀의 이야기를 『정헌영해처감록』과『이조실록』,구전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姜時宅, “濟州島 民謠의 特色”, 『濟大學報1』 창간호, 제주대 학도호국단, 1957.

필자는 최상수의 『조선민요집성』의 수집시 참가를 했던 것 같다.그래서 그 책에 실린 제주도 민요를 바탕으로 민요의 형식과 내용, 특색을 살폈다. 형식으로는 4,5조가 위주이다.가장 많은 양의 민요가 이형식을 취하고 있으며,4,4조 역시 육지부나 제주민요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나,4,5조에 비해서는 작다.3,3조도 많이 나타나고 특히 부정형의 것들도 많다.

내용으로는 뗏돌노래에서의 “이허도”후렴이 민간에서는 슬픔으로 상징되고,잠수가의 노동의 고달픔, 방아노래의 자신에 대한 비애,김매는 노래의 기능성,밭밟기노래의 제주도만의 농사법의 특성,자장가 중에 나타나는 “왕이자랑”에 대해 그리고 원정가나 팔자노래,, 시집살이,첩노래,큰애기풀이,오돌또기 등을 들고 있다.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그 특색을 살펴보면 4,5조가 많은 것은 제주부녀자들의 노동박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있으며,내용적인 특징으로는 부요의 질.양적인 우세와 노동의 양적인 우세로 나타나는 노동요가 많고,“이어도”의 애절함이 나타나고,무용요의 결여를 들고 있다.

崔鶴璇,“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 『現代文學』, 통권 48호, 현대문학사, 1958, 12.

해녀노래 각편의 예를들고 주를 달아 감상을 했다.해녀들의 정서를 표출한 노래들이 나타난다. 현장에 대한 연구가 없이 분석이 이루어진 느낌이 없지 않으나 해녀들의 물질작업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전개되는 그들의 삶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그래서 해녀노래의 정서와 내용을 맞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글이다.

## 2.1960년대

秦聖麟. 『오돌또기』. 제주:우생출판사, 1960.

秦聖麟. 『남국의 민요』. 제주: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오돌또기』의 경우는 이미 저자가 『제주도민요집』1,2,3에서 수집했던 1500여수를 재정리하여 400수로 묶어 개정판을 내놓았다. 앞의 자료집들에 비해 이 책에서는 우선 분류가 정연하고 자료집으로서의 본격적인 체계가 이루어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남국의 민요』는 앞의 책에 제주도 민요의 개관만을 덧붙여서 책명을 달리해서 펴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창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삼아 표준어로 옮겨 민요를 해설하고 있는 이 저술들은 편자의 독단을 지양하면서 각 노래의 수집시기, 제보자의 이력 등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어서 제주민요의 1차적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아울러 제주도 민요분류 일람도 작성하고 있다. 그 분류가 우선 창자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은 한국민요를 수집하고 분류한 자료집들

(특히 고정옥, 임동권 등)의 분류를 참고했음을 느낄 수 있다. 예컨대 민요를 크게 男謠, 女謠, 男女謠로 대별하는 것이 그렇다. 여기에다 저자는 男謠에 (1)오락가, (2)만가, (3)근로가를 설정하고 있고, 女謠인 경우에는 (1)자탄가, (2)정가, (3)경세가, (4)근로가로, 男女謠로서는 (1)타령, (2)근로가, (3)동요, (4) 토속가, (5)문답가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민요곡을 채보하여 11곡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남국의 민요』에 실린 제주도 민요개관에서는 민요의 ‘소리’적 성격과 형식, 내용 등에 대하여 다루면서 시집살이요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玄容駿, “濟州島 民謠에서 본 島民의 生活相”, 『鄉林2』(제주:제주상고, 1960).

민요에 나타난 도민의 생활을 가난과 싸워온 생활, 사랑과 눈물의 생활, 숙명과 체념의 생활로 구분하고 각편을 감상하고 있다.

진성기, “濟州 民謠에 보이는 女人像:특히 海女노래를 中心으로”, 『제대학보3』(제주대,1960)

자신의 저서 중 『오돌또기』에서 해녀노래에 속한 각편을 살펴서 그 구절마다 나타나는 제주도 여성의 근면성을 고찰하고 있다.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있어서의 比喻法修辭”, 『국어국문학』(서울:국어국문학회, 1960), 22호.

이 글은 제2회 국어국문학 연구발표대회(국어국문학 주최)에서 발표했던 요지다. 제주도 민요에서의 비유법의 작용은 아주 넓고 깊어서 고려가요와 더불어 귀족문학이 따를 수 없는 감쪽하고 기발한 수사적 장치를 이루고 있다. 은유는 물론, 강의적인 직유는 구어 특히 속어의 방언 중에서 그 빈도에 있어서는 강의 부사가 필적할 바가 못된다. 그 종류나 형식면에서 이러한 기법이 다종다양하게 드러남은 곧 일반민중의 심적인 특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속학적인 흥미가 깊다.

비유에 등장한 어휘들은 전부 생활 주변에서 끌어왔으며, 천체 자연, 동식물 및 일용품 들이며, 서민들 주위에 흩어진 가시물이거나 일상적인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필자는 여기에서 뛰어난 수사적인 기교를 지닌 각 노래들의 예를 들면서 분석하고 기록문학과 대조를 통해 제주도 민요에 있어서 비유의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김영돈, “제주도 민요론(1)-(4), 땃돌방아노래편”, 『현대문학』(서울:현대문학사, 1961-62), 통권 84-87호.

제주도 민요는 시적 정신과 언어구사의 우수성이 뛰어난 데 그 중에서도 땃돌방아노래의 경우는 그 착상이나 措辭의 면에서 더욱 그렇다. 질량으로 보아 우세한 까닭은 우선 땃돌을 간다든가 방아를 찧는 일이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균형잡힌 일이며, 바로 그런 일들이 제주도의 아낙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정 내의 작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작업의 성격상 이들 노래들은 서로 넘나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다는 데에 그 이유를 들고 있다.

땃돌방아노래를 주제별로 대분해서 그 주조를 살펴보면 체념, 守分과 꿈의 표현과 가정에서 우리난 사랑과 미움의 노래로 구분된다. 체념의 노래 중에는 (1)생활고, (2)고독, (3)신세, (4)팔자 등이 제재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守分の 노래에는 (1)자위, (2)자립 등으로 그리고 꿈의 노래는 (1)이상, (2)사생관, (3)발산 등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 우러난 노래들 가운데는 사랑과 미움이 표현된 노래도 있다. 사랑노래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모의 노래, 효도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주로 나타나며, 미움의 노래 중에는 (1)부부불화, (2)첩과 과부의 신세를 한탄하며 노래한 달거리체의 노래들을 열거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수집하여 위의 제재들을 바탕으로 노래를 분류하고 감상을 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고, 특히 맺돌방아노래의 내용과 형식 혹은 문학적인 가치를 맛볼 수 있는 글들이라 할 것이다.

#### 姜武重. “濟州島 民謠에서 느끼는 것”, 『제대학보 10주년 기념호』(제주대학,1962)

민요를 수집해서 읽어 본 후의 느낌을 적은 수상적인 글. 특히 ‘이어도’에 관한 일설과 님을 제재로 한 의미단락 분석이 있다.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서 본 어머니의 사랑”, 『제주도』(제주도:제주도청, 1962), 2호.

제주민요에 드러난 어머니 사랑의 유형을 추출하고 내용을 분석했다. 그 구분은 생존한 어머니(부모를 지칭하기도 하며), 혹은 사별한 부모를 지칭하기도 한다. 첫째의 유형으로는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거나, 자신과의 불가분리성, 부모의 은혜를 기림, 부모 닮보다 자신의 팔자를 닮하는 것들이 있고, 사별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노래에는 여원 어머니를 그림, 여원 어머니를 그리면서 저승과 무덤을 찾아감, 부모의 단명을 서러워하며 효도할 기회가 없음을 탄식, 여원 부모를 기림, 부모를 여원 다음 제례의 허망함을 탄식, 부모가 그리워 저승을 찾는다든 내용의 노래들이 정리되어 있다. 의미상으로는 연모나 연부모가 내용의 주된 골격을 형성한다.

#### 김영돈, “제주도 민요와 꿈”, 『제주도』(제주:제주도청, 1962), 4호.

민요에 드러나는 도민들의 꿈과 소망을 추출했다. 그들에게는 생활의 악조건으로 낭만적인 꿈은 없으나 육지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고, 섬을 제재로 하여 시적 환상에 쌓인 섬의 이미지나 그들의 꿈이 번질 다른 섬 하나씩을 그리워하고, 양반과 서울에 대한 동경과 하늘보다는 땅에 대한 현실적인 꿈으로 번진다.

#### 洪貞杓. 『濟州島 民謠 解説』. 서울:省文社, 1963. 300면.

민요를 수집하고 기왕에 수집된 자료 중에서 비교적 새로운 문화에 찻지않은 백여수를 골라서 가능한한 옳은 해독을 더듬고, 올바른 감상을 하려고 했다.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노래의 제목을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봉지가와 산천초목, 오돌또기의 악보가 김국배의 채보에 의해서 같이 실리고 있다.

130편의 자료는 좌측 페이지에 원자료와 옮김을 달고, 또 낱말의 주석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우측에는 의미단락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자료의 출처나 그 근거인 제보자, 조사지, 조사시기 등의 표기가 없고 기능적인 해설도 없으며 단지 내용중심의 감상위주가 되고 있어서 저자의 의도가 이러한 데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민요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에는 ‘오돌또기’가 제주도 민요의 대표격이라고 하면서 ‘제주도의 낭만’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인 특성으로는 리듬이나 멜로디가 풍성한 맛은 없으나, 과장이 없고 솔직한 맛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제주도민들의 심성에 연유한다고 보고있다.

이 책은 민요가 불려지던 현장과 떨어진 시대의 독자들에게 노래의 내용적인 의미와 그 속에 드러나는 과거 도민들의 정서가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는 계기와 이해를 주는 자료해설서라 할 것이다.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종류상의 특색”, 『제주도』(제주:제주도청, 1963), 9호.**

종류상의 특색으로 제주도 민요는 노동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부분이 여성요이다. 본토 민요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노래가 거의 없다. 정연요, 무용요, 동식물요 및 타령 등, 곧 양지의 노래가 적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하면서 각편을 예로 들면서 분석하고 있다.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특색”, 제주대학 국어국문학 연구실, 1964.**

이 논문의 목차를 보면 1. 특색의 개관, 2. 시공의 악조건에서 오는 비통성(근면, 자주, 공리성에 관련하여), 3. 삼다풍토에서 오는 꿈과 한계, 4. 비유를 중심한 우수한 조사, 5. 餘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색의 개관의 요지는 이러하다. 제주도가 地脊民貧의 땅으로서 노동은 삶의 근본이어서 노동요가 많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요가 흔하다. 그리고 지금 사멸 직전에 있어서 일부러 기억을 더듬어야만 간신히 부를 수 있는 민요들이어서 수집,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로는 제주도의 입지적 조건, 특히 자연 환경 속에서 역사적인 외세의 침략, 양반들의 횡포에서 빚어진 비통성, 근면과 자주를 민반침한 현실성을 지닌 각편들의 예가 무수히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삼다 풍토에서 우려난 꿈과 한계를 살펴보면 바다와 산은 도민들에게는 소중한 창구 역할을 했으며, 바람은 적이기도 하고 혹이면 소망이며, 돌 역시 인간 한계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 꿈을 그리기도 한다. 한편 ‘비유를 중심으로 한 수사’의 내용은 이미 『국어국문학』 22호에 실린 바 있다.

**김영돈, “제주민요에서의 불패의 신념”, 『국어국문학』 27호, 국어국문학회, 1964.**

제주도 민요에서 80%가깝게 노동요가 많다는 사실은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 현실주의적 공리성과 직결된다. 이 논문에서는 불패의 신념에 나타난 노래 각편들을 정리하고 제주도민이 왜 그러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고 하는 시·공적, 지리적, 역사적 환경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무암과 화산회토로 덮힌 척박한 石多의 섬이다. 이러한 노래들은 호당 경지면적이 약 8만보이며, 3정보 이상의 땅을 가진 농가가 거의 없는 심각한 영세성에 허덕이면서 불려지는 노래들이었다. 그리고 65일 동안 폭풍이 몰아치는 입지적 빈곤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노래들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환경으로는 중앙의 폭정, 지방토호의 침략, 몽고의 침탈, 과중한 부역, 왜구의 침략, 43의 참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으로 참으로 엄숙하게 삶을 전개한 것이다.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분포와 風多”, 『국문학보』 2호(제주대학, 1964).**

제주도는 동반부에 전체적으로 민속학적인 자료가 풍부하다. 노동요인 경우도 조천, 한림, 남원, 제주시, 성산면에 치우치며 특히 표선면 성읍리는 정의현으로 과거에 현청이 있어서 창민요와 노동요가 불려지고 있다. 또한 양태는 삼양, 제주시, 신촌 등에서, 탕건은 조천, 함덕 등에서 갓모자는 화북, 노

형등에서, 탕건은 화북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려진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민요 분포도를 전승자의 주소별 통계에 따라서 구분하여 완성시키고 있는데 이는 민요연구의 기초적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김영돈, “제주민요와 현실성”, 『제주도』(제주:제주도청, 1964), 15호.**

제주도 민요는 너절한 신세타령이라 할 수 있는 퇴폐적, 소극적이고 도피와 애수만의 정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 민요를 통해서 살펴보면 체념을 하면서도 그것은 앞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알파하게나마 그 노래 속에 나타나고 있다. 민요는 시가의 원초적인 형태이므로 구체적인 공리가 나타나고, 제주도 민요인 경우는 특히 리얼리티가 강하다. 이는 지리,역사, 사회적인 조건에 따른 것으로 근면, 자주, 불패의 신념이 내용상에 나타난다.

요즘에서 노동요가 많다는 사실, 공리성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에도 나타나고 관용구나 리듬이 장난이 없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성격은 제주도민의 대표적인 의복인 ‘갈옷’이나 애교 없는 말씨, 형태소가 생략된 방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돈, “제주도 민요와 현실성”, 『濟州新聞』(제주:제주신문사, 1964), 4월 2일자.**

제주도 국어문화회발표요지, 내용은 위의 내용과 거의 동일.

**이봉준, “오돌또기 新考”, 『濟州新聞』(제주:제주신문사, 1964), 4월 30일자.**

‘오돌또기’의 노래는 육지에서 전파되어 고유의 민요로 승화되었다고 보며, 그 ‘오돌또기’의 뜻은 별 뜻없는 흥겨운 노래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후렴의 ‘둥구데당실’은 童妓大當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단지 박자와 흥겨운 소리이며, ‘연자버리고’의 뜻역시 圓者머리로 보는 견해와는 다르게, 엇다와 체념을 나타낸 ‘엇어버리고’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고 주장하였다.

**임현도, “제주도 여성의 「탄식요」 고찰(1)”, 『제주도』 (제주:제주도청, 1965), 22호.**

여성들의 탄식요에는 과부의 노래, 첩노래, 시집살이 노래 등 셋으로 대별 가능한데 과부의 노래로서 ‘달풀이 12월가’를 감상하였다. 매월 달을 분리하여 그 달 그 달의 건디기 곤란한 기다림의 소회를 읊다가 11월과 12월 만은 합쳐서 1절로 노래한 점에서 12월가로서의 형태상 가치가 있고, 그 내용으로는 강인한 제주도 근로 여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좌영조, “한국민요의 연구-제주도 민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1965.**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민요의 개념
2. 민요의 발생과 발전
3. 민요의 형식; 1)본토민요의 형식, 2)제주도 민요의 형식
4. 민요의 내용; 1)본토민요의 내용, 2)제주도 민요의 내용
5. 제주도 민요의 특색

## 6. 민요가 국문학에 끼친 영향

위의 목차에 따르는 전개중 제주도 민요의 형식적인 특성으로서 구수율은 4구율이 가장 많으며, 음수율로서 4,3,2조가 많아 3음보로 보았다. 형태상의 특징으로 (1)단형시가로 함축성있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2)우리시가의 전통적인 운율미를 유지하고 있고, (3)관용구와 상투적인 운의 회작이 없고, (4)무기교적이며, (5)생활주변의 가시물을 인용하여 인상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내용상의 특징으로는 (1)여성노동요가 거의 전부이며, (2)생활고가 여실히 반영된 단상의 비가가 대부분이고, (3)근면성과 자립정신에 기인된 여성의 비장한 신념이 강인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논했다.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서울:일조각, 1965.

제주도 민요를 전도 일원에 걸쳐서 수집하고 분류를 하여 제주도 민요를 체계화 하고 집대성 했다. 여성 고령자를 택해서 수집을 했으며, 각 수마다 노래의 끝에 부른 이의 주소, 성별, 연령 및 성명을 기입하였다. 노동요는 상위 분류를 하고, 상위 분류로서 노동요와, 타령, 동요로 삼분했다. 노동요는 1. 땃돌방아노래, 2. 해녀노래, 3. 김매는 노래, 4. 타작노래, 5. 망건노래, 6. 양태노래, 7. 밭밟는 노래, 8. 풀베는 노래, 9. 멀치후리는 노래, 기타 노동요로 설정하였다. 둘째로 타령류는 1. 옛타령, 2. 잡요, 3. 만가를 들고 동요는 동요, 자장가, 어희요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이 기능성 위주의 세분된 분류를 되고 있으며 땃돌방아노래, 해녀노래, 동요의 경우는 그 노래 속에 나타나는 제재나 내용 중심으로 하위분류를 하고 있다. 곧 땃돌방아노래인 경우는 가사의 내용을 추출하며 (1)땃돌노래의 기능성 (2)방아노래의 기능성 (3)자립, 근면, 생활고 (4)팔자한탄의 노래 (5)사랑과 원한의 노래 (6)시집살이 (7)집안 (8)경세 (9) 꿈 (10)신앙·풍토로 정리했다. 또한 해녀노래는 1.해녀작업 출발의 노래, 2.해녀작업의 노래, 3.해녀출가길의 땃노래, 4.해녀 출가생활의 노래, 5.사랑노래, 6.해녀들의 여정으로 나누었다.

민요 각수마다 제주도 방언의 특수성에서 오는 이해의 난점과 이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래 전체를 표준어화한 역가를 원가의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표준어로 옮긴 역이나 원가의 주해를 어휘와 구절을 구분하여 시도하여 제주도 민요를 모두 표준어로 대역한 것이다.

기존의 자료들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감상에 비하면 상당 부분이 구체적이고 정밀한 해석이 되어 있어 제주방언에 문외한일지라도 제주민요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점이 이 책의 장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제주도 민요 분포도와 김국배 편곡의 제주도 민요곡집을 부록에서 실고 있다. 악보화된 민요로는 오돌또기, 이야홍, 봉지가의 창민요와, 해녀노래, 땃돌노래 1, 2, 김매는 노래, 방아노래, 타작노래, 멀치후리는 노래, 망건노래, 양태노래 등인데 음악인 김국배의 채보와 편곡으로 실려있다.

이 저서는 제주도 민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충실한 자료집으로 평가된다.

임헌도, “제주도 여성의 「탄식요」 고찰(2)”, 『제주도』(제주:제주도청, 1966), 23호.

제주도의 첩노래를 나열하고 감상하고 있다. 남성의 취첩에 대한 반항, 혹은 가정의 경제적인 난관을 호구지책으로 첩살이하려는 의도, 정치와 첩의 비교, 첩과 자신의 비교 등을 제재로 한 노래들을 감상하고 있다.

김영돈, “속담과 민요의 교류-제주도 속담과 민요를 중심으로-”, 『제주도』(제주:제주도청, 1966), 27호.

구비문학 각 장르는 상호 교혼작용이 일어난다. 민요가 설화나 무가 속에 끼여드는 가 하면, 속담이 민요, 설화, 무가 속에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속담은 민요와 밀접한 관계로 자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유사관계는 속담이 형태가 짧고, 속담이나 민요는 은유 곧 메타포어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속담처럼 민요 역시 교혼성을 띤다는 점이다. 속담과 민요는 다같이 민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볼 수 있고, 늘 이용하는 사물으로써 제재를 삼고 향토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속담이 있어서 민요에 끼여드는 경우도 있지만, 민요가 속담화 하는 경우도 많다.

**임헌도, “제주도 민요의 유별적 고찰(1)”, 『제주도』(제주:제주도청, 1967), 31호.**

민요를 각 요종별로 살피어서 거기에 반영된 도민의 전 생활 감정과 그 단면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민요의 본질과 제주도의 연혁, 위치와 지세 등도 개관하고 있다.

**高橋亨, 『濟州島の 民謠』, 東京:천리대학동양학연구소, 1968, 동방학기요 제2집.**

高橋 亨 선생의 『濟州島の 民謠』에 실린 민요자료는 본래 1932-37년까지 수집된 것으로서 1954에는 이미 그 책의 원고는 완성되었다고 한다.

선생의 조선 민요에 대한 관심은 1929년(昭和 4) 11월에 섬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조사하고, 이어서 朝鮮 各島の 민요를 모집 연구하였다. 원래 그는 조선의 유학이나 불교 등의 사상사를 연구했으나 가장 조선적인 것으로 조선인의 魂과 人情은 민요를 연구하는 것이라 여긴 것이 연구의 핵심적 동인으로 파악된다.

이 책의 구성은 본론인 제주도 민요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朝鮮民謠에 대한 개괄적인 總說을 담고 있다. 조선문학에 있어서의 민요의 지위, 조선 민요의 역사, 연구와 채집의 역사, 조선민요의 특색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1장에서는 제주도의 역사와 名稱, 風俗, 人心, 進上을 개관하면서 민요가 존재하는 역사적 지리적인 특성에 의한 생성배경을 다루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섬 민요 채집의 역사와 그 민요의 형태를 개괄하고 있다. 제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요를 분류하고 직접 각편을 나열하여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민요의 분류와 그 형식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테면 분류기준의 하나로써 여성창자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도가 女多인 섬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3장에서는 섬의 여자 향을 따로 설정하여 涼太歌, 網巾歌, 海女歌, 身世歌, 情歌, 兩班의 歌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洪義浪에 관한 일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당대 제주도 여성들의 양반에 대한 동경과 가치판단을 읽을 수 있는 양반의 노래와 만덕의 일화가 담긴 것, 홍의랑의 설정 등은 이 책만이 갖는 특징으로 자리매김 된다고 본다. 그리고 맷돌작업이나 방아작업 시에 부르는 노래를 杵磨謠로 제4장에서 설정하여 그 형식에 따라 句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즉 4언4구(즉 4음절 4구로 구성된 것)와, 4언6구, 4언8구, 4언 10구, 4언12구, 그 이상 길어진 것을 長句라 대별해 놓은 것이 바로 그러하다. 제5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涼太歌, 網巾歌, 海女歌의 의미단락 등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아기를 재우면서 부르는 자장가를 6장에서, 7장에서는 노동요로서 농요인 踏田謠, 除草謠, 打麥謠를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한편 제8장에서는 서울을 향한 섬여자들의 심정을 노래한 것을 京城의 노래에 묶어서, 그리고 제9장에서는 뱃노래인 船謠를 살피고 있다. 제10장에서는 土役謠와 埋葬謠를, 제11장에서는 진상의 고역에서 나타나는 진상품목을 나열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進上謠를 아울러 살피고 있다.

임헌도, “제주도 민요의 유별적 고찰(3)”, 『제주도』(제주:제주도청, 1968), 34호.

타작노래, 해녀의 노래, 멧돌노래의 각편을 예로 들고 감상하고 있다.

김영돈, “탐라의 자산 민요”, 『제주도』(제주:제주도청, 1968), 39호.

민요는 지역의 지리나 역사, 산업, 풍습, 제도, 경제, 민정, 종교 등을 밑받침으로 깔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제주도의 민요는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는 도민성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녀노래나 밭밟는 노래는 제주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3. 1970년대

진성기, “오돌또기와 金福壽”, 『제주신문』(제주:제주신문사, 1970), 2월 26일자.

오돌또기에 얽힌 金福壽 전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제주도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표류되어서 安南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임춘향이라는 여자를 만난다. 이 여자도 오끼나와(琉球)에서 표류해온 사람이었다. 유구의 사신과 일본에 도착한 김복수는 임춘향의 오빠 임춘영을 만나 유구로 돌아가는 도중 한라산을 보게되어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안남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돌또기라는 것이다.

김영돈, “제주도 민요와 石多”, 『한국민속』(서울:한국민속학회, 1970), 3호.

민요나 고대가요가 흔히 생활주변의 가시물과 일용품으로 비유를 일삼고 있다. 특히 제주도 민요와 돌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제주도 민요에 나타나는 돌은 <지세어명>에 비유한 돌로서 안정, 침묵, 인고, 수분, 불패를 상징했고, 이에 반해 불운과 불안정을 <궁근팡>에 비유했다. 이(齒)에 비유된 돌, <돌명칭>은 위치나 기능에 대해서 아무 불평없이 고스란히 제분수를 지키는 장님, 병어리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민요에는 항변없이 돌의 미학을 지키고, 자학하거나 까무러칠 줄 모르는 돌의 철리를 지니고 사는 도민의 의식이 드러난다.

羅運榮, “濟州島 民謠의 作曲學的 研究(Ⅰ) - 음악구조를 중심으로 -”, 『延世論叢』(서울:연대출판부, 1971), 제9집, pp. 103-134.

제주도 민요 사설의 분류,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 창민요의 음악적 특성, 제주도 민요에 나타난 육지민요의 영향, 작곡학적 고찰이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필자는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 실제로 1966년, 67년, 70년 세차례 제주도를 직접 방문 현지답사하여, 그 녹음 채록된 민요를 놓고 작곡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논문으로 파악된다.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위상”, 『교육제주』(제주:제주도교육위원회, 1972), 18호.

제주도 민요의 위상은 곧 제주도의 특성이다. 민요연구의 격조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방법론의 확립이요, 둘째는 제주도 민요는 물론, 한국민요에 대한 전반적인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째는 인류학적 혹은 민속학적인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구비문학과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국문학과와의 연계 혹은 서민문학의 비중을 평행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櫻井哲男, “濟州島の 民俗音楽 -民俗音楽 研究方法의 試案-”, 東京藝術大學院 修士論文, 1973.

제주도의 민요를 수집하여 분류하고 음악적인 구조분석을 시도했다. 노동요를 경제적 전승음악이라고 칭하고 음악적인 분류와 기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논문이다.

목차는 제1장, 제주도 민속음악 분류학, 가)음악분류학의 의미와 성격, 나)山口氏의 분류법과 제주도, 다)분류원리와 분류기준, 라)제주도 음악분류학, 제2장, 제주도의 민속음악, 가)민속음악 연구의 의의, 나)민속음악의 개념, 다)민속음악의 제측면, 라)제주도의 민속음악:기술분석의 시안, 마)제주도의 경제전승적 민속음악의 구조분석으로 구성됨. 제주도의 노동요, 해녀노래, 멀치후리는 노래, 김매는 노래, 타작노래, 밭밟는 노래, 방아노래, 멧돌노래, 망건노래, 자장가, 행상노래, 달구노래, 고기낚는 노래를 음악적인 구조를 밝히면서 기본음열구조와, 기본선율구조, 리듬형, 기본 악곡형식 등을 밝혔다.

김영돈, “제주민요”,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주도편)』(서울:문화재관리국, 1974).

제주도 민속의 총체적인 연구속에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보형의 음악과 무용 편에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인 채보 분석이 따르고 있고, 구비전승의 민요편에 김영돈이 수집한 자료가 실려있다. 채보된 노래로는 밭벌리는 소리, ㄱ레ㄴ는 소리, 톱질소리, 방애 놀래, 검질매는 소리, 검질매는 사데소리, 마당질소리, 잠녀놀애, 상여소리, 달구소리, 망건노래, 따비놀애, 오돌또기, 이야홍타령, 봉지가, 산천초목, 중타령, 동요중 불락삼춘 등이 있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60년에 행해진 것으로서는 해녀노래, 타작노래, 멧돌노래, 방아노래, 김매는 노래, 밭밟는 노래, 자장가 등이 있고, 자장가, 서우젯소리, 꼴베는 노래, 톱질노래, 달거리 등은 1971 당시에 수집된 자료들이다. 여기에 실린 자료들은 아직까지 미채록된 부분에 치중하였다고 한다. 녹음시 2인 이상 교창일 경우는 전승자 구분을 하여 현실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고 전승자의 주소나 성별, 연령을 기입하였다.

김영돈, “제주도의 노동요”, 『한국문화인류학』(서울:한국문화인류학회, 1976), 8집.

제주도 노동요의 기능적인 분류를 하였다. 그 분류는 필자가 자료집을 편할 때의 분류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노동요는 농업요, 제

분요, 어업요, 관망요, 별채요, 잡역요로 나누어 각기 기능별로 세분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던 제주민요에 관한 노동요 해석이 집대성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요종상으로 본 제주도 민요의 특성을 다음의 몇가지로 분석했다. (1)요종의 수가 24종에 이른다. (2)대부분 女謠다. (3)지역적 특이성으로 보아서 뱃돌방아 노래가 전승되는 데 그 질이 특히 우수하다. (4)제주도에만 전승되는 민요로는 해녀노래, 발뺨는 노래, 양태, 탕건노래, 망건노래가 있다.

그리고 노동요의 분포적 특성으로는 모든 민요요종이 전도에 분포되고 해녀노래나 어업노동요는 해촌에만 전승되며 관망요는 제주시와 조천면 일대만 불리어진다.

노동요와 작업과의 관계는 (1)작업과 민요가 모두 현전되는 경우, (2)작업과 민요가 분리된 경우, (3)작업은 사라지고 민요만 남겨진 경우, (4)작업은 남아있되 민요는 사라진 경우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또 제주도의 노동요를 가창 장소별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요의 가사는 노동과 직결되는 것과 노동에 관계없이 전승자들의 생활진반에 걸친 실정과 고뇌, 의욕과 희원을 담고 노래되어진다. 가창자들의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고찰도 아울러 행하고 있다. 즉 생활고, 자립, 근면, 시집살이, 애정, 가사, 가족, 경제, 신앙풍토, 꿈, 소망 등에 대한 고찰이 바로 그러하다.

노동요에 반영된 도민의식은 시공의 악조건에서의 비통성이 두드러지는 가하면,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이 강렬히 들어있고, 이로 말미암은 공리주의적인 현실성이 짙다고 주장하였다.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한국언어문학』(서울:한국언어문학회, 1977), 15호.

제주도 민요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분류를 하고 요종의 특성을 규명하며, 제주민요의 核이라 할 만한 노동요의 가사가 兩型으로 분류 정립할 수 있음을 밝히고 표현상의 우수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제주도 민요의 특성이라고 할만한 현실주의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분류에서는 『제주도 민요연구(상)』의 분류를 다시 세분했는데, 노동요 편과 타령류 편, 그리고 동요편으로 크게 대별하여 다시 세분하고 있다. 즉 노동요 편에서는 (1)농업요, (2)제분요, (3)어업요, (4)관망요, (5)별채요, (6)잡역요로 분류하고 있고, 타령류편으로는 (1)옛타령, (2)잡요, (3)만가 등으로, 그리고 동요편에서는 (1)동요와 (2)자장가로 나누었다.

요종상의 특성으로는 노동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요가 대부분이며, 본토 민요에 비해 유사요가 드물고, 정연요, 무용요, 동식물요 및 타령 등의 밝은 노래들이 드문 것은 숙명적인 여건과 특이한 생산구조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전승자들의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1)생활고, (2)자립, 근면, (3)시집살이, (4)애정, (5)가사와 가족, (6)경제, (7)신앙과 풍토, (8)꿈과 소망이다.

민요의 표현 형식은 4,5조가 주를 이루고 2행 1장을 이루는 데, 1,2 행의 뱃구로서 3,4 행이 맞서고, 5,6행은 3,4행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원숙하게 매듭짓는 형태를 취한다. 제주도 민요의 현실주의적 성격은 불리한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연유하며 또한 역사적, 사회적 여건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의 내용은 시공의 악조건으로 말미암은 처절과 통분, 그리고 굳건한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 주어진 실정을 투철하게 타개해나가는 현실주의적 생활관으로 요약된다.

김영돈, “해녀노래와 해녀”, 『국어국문학논총』(이승녕선생 고회기념)(서울:답출판사, 1977).

해녀노래의 기능, 창곡, 가사의 관계를 두고서 고정적인 결합을 「=」로 유동적인 결합을 /=로 나타내면, 기능=창곡=가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와 기능/=창곡=가사로 나타낼 수 있다. 위상으로서는 맷돌·방아노래에 비해 노동실태를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문학적으로 우수한 맷돌·방아노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지우 변시민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78.

제주도 민요의 시·공적 배경으로 민요와 민중생활의 관계와 제주도의 지리 역사적인 약조건 요증상에 나타난 제주도 민요의 현실주의적 성격, 내용으로 살핀 현실주의 적인 성격, 제주도 동요에 드러난 현실주의적인 생활관 등을 다루고 있다.

김영돈, “민요와 타 구비문학과 의 교류-제주도 민요와 속담을 중심으로-”, 『제대 논문집』(제주:제주대학교, 1979), 10집.

민요와 타구비문학과 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선 속담과 민요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관계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1)속담이 그대로 민요 한편으로 불리는 경우, (2)속담이 민요의 일부분으로 끼여드는 경우, (3)속담이 민요속에 용해됨으로서 그 표현이 개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

속담과 교류되는 제주도 민요의 제재들은 자연, 인사, 가정, 시집살이, 생업, 의식, 양반과 관리 등이다. 이러한 제재들은 민간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이면서 지리, 역사, 사회적 여건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요증간의 교류가 심한 민요들은 특히 맷돌방아노래나 해녀노래에서 선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任東權. 『韓國民謠集 (I)-(VI)』. 서울:집문당, 1961-1981.

저자가 ‘自序’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韓國民謠集』은 기계문명의 급진적인 발전의 이면에 잔존문화의 급도로 쇠퇴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근 10여년 수집한 것을 정리한 책이다. 한국 민요 총집성을 목표로 하여 문헌자료와 필자자료를 합친 셈이다.

분류는 주제, 창자, 기능과 제재의 명칭 등을 참조해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요증의 중복됨은 불가피했는데, 이에 대해 저자 자신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료는 완성형을 원칙으로 하기는 했으나, 전승, 전파, 변형 연구에 도움이 됨직한 노래는 수록했다.”

노래의 서두에 일련의 번호를 표기해 두고 있으며, ‘이앙가’와 ‘맷돌놀래’, ‘아리랑 타령’은 가나다 순으로, 그리고 1권에서의 고대 민요는 독자적인 번호를 두었다. 동요인 경우는 1,3,5 권에 각각 수록되고 있으며, 6권의 내용은 주로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자료이고, 7권은 충남 예산지방을 중심으로 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노래의 명칭은 가급적 ‘-요’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굳어진 경우는 ‘-가’, ‘-타령’, ‘-노래’ 등을 사용했다.

제주지방의 자료는 1-5권에 걸쳐 있으며, 그 노래들은 필자수집 자료와 기존문헌인 경우는 보고서, 학술지, 교지 등(민조)이고, 이밖에 김영삼; 『제주민요집』(제민집), 임화; 『조선민요선』(민선), 진성기; 『제주도민요』(제민), 양홍식, 오태용; 『제주향토기』(제향기), 고정옥; 『조선민요연구』(민연) 등을 참고 해서 편했다.

지역구분으로 제주도, 북제주, 남제주로 구분되어 사설마다 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요종으로는 김매는 노래, 맷돌노래, 방아노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주도 노동요가 수집되고 있으며 육지부의 노동요와 함께 분류되어 실려있어서 제주도 민요의 특이성을 비교고찰 할 수 있다.

\* 『韓國民謠集』에 실린 전체 자료들의 유형은 좌혜경의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한국민요 지역별 자료색인”, 『민요론집』(민요학회, 민속원, 1993), 제2호, pp.429-613.

#### 4. 1980년대

김영돈, “제주도민요 맷돌·방아노래”, 『국어국문학』(서울:국어국문학회, 1980), 82호.

맷돌과 방아작업시 불려지는 맷돌·방아노래를 총체론과 서설적인 입장에서 전승과 창법, 제재, 표현을 살폈다. 가창과 전승이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가창자 대부분이 여성이다. 그 형식은 45조가 주를 이루고 2음보가 1행이 되어 4행이 정형이다. 각편을 부르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고, 연 끝에 나타나는 어휘의 연상에 따라서 다음 의미단락을 연상시켜 나가기도 한다. 창법은 독창과 선후창, 교창이 있다.

사설의 내용은 노동 실태보다도 민간생활 실태와 민간의 정의에 대부분 쏠리고, 민요의 유다른 값어치도 여기에 있다. 주된 사설 내용으로는 자립, 근면, 시집살이, 가사, 가족, 경제, 신앙, 풍토 등이다. 그 표현 역시 빼어나게 아름답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9-1, 9-2, 9-3).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국적인 구비문학조사를 대대적으로 감행하여 현장론적인 방법으로 설화, 민요, 무가를 조사한 것이다. 각 도마다 1개 혹은 2개의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각 군의 개관에 이어서 조사마을, 제보자, 설화, 민요, 무가 순으로 자료를 배열하였다.

각 자료의 구연동기와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자의 의견, 조사분위기 등도 설명하고 있어 그 자료의 입체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즉 성격이라든가, 습관, 직업 등을 제공하여 창자론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다.

조사지역으로는 제주시 삼도동과 노형동, 서귀포시 중문동, 북제주군 지역으로는 구좌면 동김령리, 애월면 광령3리, 남제주군 민요로서 대정읍 하모리, 안덕면 덕수리, 남원읍 하례리, 표선면 성읍리 민요등이 수집되고 있다. 대부분의 제주도 민요가 망라되고 있으며, 특히 덕수리의 민요가 상세히 조사되고 있다.

\*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1, 9-3에 실린 전체 자료들의 유형은 좌혜경의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한국민요 지역별 자료색인”, 『민요론집』(민요학회, 민속원, 1993),

**김승태, “제주도 연자매와 그 민요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제주도 연자매와 도민 생활과의 관계를 밝히고, 연자매의 제작방법, 제주도에 존재하는 연자매의 분포, 연자매의 작업실태, 연자매의 구조 등을 분석한 후 노동요에서의 연자매 노래의 위상을 살폈다. 연자매 노래는 연자매를 이용하여 보리나 조를 도정하는데 사용하며 연자매 작업은 장시간에 걸쳐 행해지는 힘들고도 격렬한 노동이다. 연자매 노래는 희귀한 데 그것은 계절적인 특징과 짧은 시간내에 행해지는 작업적인 특징을 띠고 불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노래들은 노래를 새로 창작해서 부르기도 다른 노동요, 특히 밭밍는 노래나 해녀노래, 멧돌방아 노래를 차용하며 불려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사설의 내용은 근면, 협조의식, 의지, 민중의식이 드러난다.

연자매 노래와 더불어서 멧돌·방아 노래도 언급하고 있다. 즉 연자매의 옷돌과 알돌을 제작해서 산야에서 마을의 설치장소로 끌어들이면서도 노래는 불려진다. 이것은 운반 노동요로서 일명 슬깃소리라고도 한다. 이때는 협심단결, 힘의 통일을 요구하는 의미있는 소리보다는 힘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구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영돈, “민요의 기능과 사설”, 『한국문학 연구입문』(서울:지식산업사, 1982).**

민요의 정의, 민요의 기능과 사설과의 관계, 기능의 종류, 민요사설의 주제, 그 분류, 동요의 처리, 민요연구 방법론과 앞으로의 과제 및 연구의 전망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민요의 정의에 있어서도 그 개념을 일곱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고찰하고 있다. 즉 (1)민중공동의 참여, 즉 집단성을 띠, (2)반드시 구연을 전제로 함, (3)기능이 뚜렷하고 민간생활과 직결됨, (4)민요는 민중적, (5)지역성을 가짐, (6)자족적으로 창작자 스스로가 즐기고 필요에 의한 것임, (7)창작자는 전문성을 지니지 않음 등이 바로 그 주요 요지이다.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2.**

제주도의 멧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노래의 배경과 분포, 전승및 전승자, 창법, 제제와 기능, 내용과 표현을 분석하고 제주도 민요의 이론을 세운 논문으로 한국 민요의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민요의 속성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며, 제주도 민요의 배경을 역사적, 자연적, 사회환경에 따라서 밝히고 있다. 제주도 민요의 위상에 터전해서 분류를 시도하고 특히 그 중에서 여성노동요의 대표격인 멧돌·방아 노래와 해녀노래를 분석했다. 아울러 멧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의 배경, 전승, 전승자, 창법, 기능제제, 내용, 표현에 따라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제주 여성노동요에 드러나는 도민의식을 분류상, 혹은 내용상에 따라서 추출하였고, 도민들의 의식을 自彊不息의식으로 집약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제로는 각편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 민요 전반을 종류 단위로 한 다각적인 연구, 운율이나 문체 등 그 형식 분석, 가락과 사설의 상관성 분석, 구비문학과 의 교류실태, 기록문학 특히 국문학

작품과의 대비, 국내외 여러 지역 민요와의 비교연구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영돈, “해녀노래(1)”, 『북천 심여택교수화갑기념논총』(서울:형설출판사, 1982).**

해녀노래를 다루기 위한 몇가지 본격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또 이에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즉 그 본격적인 과제로는 (1)해녀노래가 제주도 민요에서 차지하는 위상, (2)해녀노래의 전승과 전승자의 실태, (3)해녀노래의 창법, (4)기능과 제재에 나타난 민중의식, (5)사설의 내용과 해녀들의 생활과 실태, (6)해녀노래의 표현방법 등에대한 과제의 제시가 바로 그러한데 특히 필자는 이 가운데 (1), (2), (3) 항의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해녀노래의 위상은 멧돌방아 노래에 비해서 가창기연상의 특징, 즉 작업장소와 작업인원, 작업시간 등의 특징에 따라 썩 가다듬어지지 않는으나, 노를 저으면서 노래할 기회가 많으므로 빼어난 사설들도 많다.

해녀노래의 전승에서 그 노래들은 드물게는 해엄처 나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낚시거루나 범선을 타고 오고갈 때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부르며 해녀노래의 가락에 고정적 사설과 유동적 사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민요가 그렇듯이 해녀노래도 독창과 교창, 선후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부분 두 사람 이상이 노를 저으므로 선후창이나 교창이 주로 이루어진다. 선후창은 두 사람 이상이 민요를 부를 때 한 사람이 뜻있는 사설을 부르고 다른 사람이 그 후렴을 받는 경우이다. 교창인 경우는 (1)앞소리 사설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2)앞소리와 다른 사설을 부르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각편의 구성은 연상작용에 따르거나 그 구성간의 긴밀성보다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각편을 이어나가게 된다.

**김영돈, “해녀노래의 기능과 사설분석”, 『민속어문론총』(훈민 최정여박사충수기념), (대구:계명대출판부, 1983).**

해녀노래를 그 기능과 그에 따른 사설내용, 표현의 기법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다. 기능면에서 이 노래는 해녀들이 물질하러 배타고 오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른다. 제재에 따른 세분된 내용을 살펴보면 (1)해녀작업 출발의 노래; 가)배타고 나감, 나)해엄처나가는 기능이 표출된 노래, (2)해녀 작업; 가)잠수작업, 나)해산물채취, 다)고역 토로, 라)탄로, 무상, 마)작업목적, (3)해녀 출가 과정; 가)이향출가, 나)노젓는 기백, 다)배와 뱃사공, 라)출가하는 뱃길, 마)출가목적, (4)해녀출가생활, (5)애정; 가)상사, 나) 연모, 6)여정; 가)신세토로, 나)일상정의 등의 내용이 주로 표출된다.

또한 사설은 역동적이며 직설적인 색채가 짙고, 반복과 4·4조의 자수율이 효과를 드러낸다.

**김영돈, “민요의 속성”, 『국문학론총』(최동원 선생 화갑기념)(서울:삼영사, 1983).**

민요의 속성을 10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민요는 가락, 사설, 기능이 삼위일체로 구연된다. 둘째, 민요의 범위에 창작민요와 동요를 포함할 수 있다. 셋째, 다른 구비문학처럼 민요는 서민 공동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넷째, 민요는 반드시 구연을 전제로

하는데, 구연하는 동안 구연자는 시인이다. 다섯째, 민요는 기능이 두드러져서 서민생활과 구체적으로 직결된다. 여섯째, 민요는 화석화 된 것이 아니라 지역민 전원의 공동 특질로 생동한다. 일곱째, 민요는 철저히 서민적이어서 서민들에 의해서만 불린다. 여덟째, 민요는 불리는 곳의 지역성이 짙게 깔린다. 아홉째, 민요는 자족적이며 비전문적인 노래이다. 열째, 민요는 음악이요, 문학이요, 민속이므로 그 삼각적 측면을 공유한다.

**김영돈, “제주민요의 분류”, 『구비문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4.**

민요분류의 기준을 기능 위주이거나 내용 위주의 방법을 택하든 이 둘을 혼합한 분류를 택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민요인 경우 대부분이 노동요이므로, 제주도민의 생산구조 및 민요구연 여부의 실태에 근거해서 분류가 되어야 한다.

노동요로는 농업요, 제분요, 어업요, 관망요, 벌채요, 잡역요로 나눌 수 있으며, 의식요로는 장례의식요, 곧 행상요가 전하고 유희의 기능을 지닌 무용요는 전하지 않는다. 노동요는 30여종에 이르는 데, 특히 제주민요의 핵심은 맷돌방아노래이며, 세계에 유래 없는 해녀노래가 전승된다.

맷돌노래는 노동의 기능은 지나나 노동실태 보다는 부르는 사람의 정의를 노래하므로 그 제재는 생활고, 자립근면, 시집살이 등 서민의식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노동요인 경우는 기능에 따라 부차적인 분류로 내용을 기준한 분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을 라흐만(R.Lachmann) 과 쿠르트 작스(Curt Sachs)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음조직은 (1)2도 핵음구조, (2)3도 핵음구조, (3)4도 핵음구조, (4)4도 핵음구조, (5)5도 핵음구조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선율구조에서 종지는 장2도 하행 종지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도약진행으로 종지되는 민요가 적다. 그리고 선율형으로는 (1)장3도 하행 + 장2도하행, (2)장2도 하행 + 완전4도 하행형과 단3도 하행 + 장2도 하행, (3)장2도 하행 + 단3도 하행과 단3도하행 + 완전4도 하행형, (4)단3도 하행 + 장2도 하행, 장2도 하행 + 장2도 하행형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민속음악 - 제주도민요편』.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루어진 구비문학 대계의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구전 민요의 악보화 작업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한국정신문화연구원)를 참고하면서 현지답사를 통해 이룩되었다. 여기 채보작업에는 한만영, 권오성, 이보형 등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고 있고, 김영돈은 노래생성의 배경으로 제주도의 지리와 역사를 개관하고, 제주도 민요를 분류하여 제주도 민요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사설 전반을

정리했다.

특히 제주도 민요에 대한 기능적 관점에 따른 일원화된 세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위 분류에서 농요, 어요, 기타 노동요, 의식요의 기능적 분류와 기능적인 분류가 힘든 부녀요, 동요, 잡요 등은 따로 설정하였다.

우선 면단위 지역 분류를 하여 일련번호를 붙여서 편을 구분하고 있고,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각 곡목의 순서는 가능한 작업의 순서에 준하고 있다.

**뿌리깊은나무 편.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 - 제주도 민요- 』. 서울: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4, 제3집.**

브리태니커회사에서 음반출반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보형의 해설과 사설, 그리고 이의 악보가 채록되고 있다. 그리고 창자의 이력에 대한 약간의 해설도 가미되고 있다.

채록된 노래들은 오돌또기와 이야홍타령, 서우젯소리, 김령지역의 고기잡이소리로 이여도사나, 떨치후리는소리, 성읍의 농사짓기소리로 받들리기, 김매기소리(홍애기소리), 맷돌소리(ㄱ레ㄴ소리), 성읍 소리꾼소리로 봉지가, 중타령, 오광산타령(산천초목), 짚은사랑가(삼마), 질군악, 계화타령, 신목사, 동풍가 등이다. 소리꾼으로는 김경화, 조을선, 이선옥, 현순옥, 김주옥, 양승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좌혜경, “제주 전승동요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

제주 전승동요의 분류를 동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어희요, 풍소요, 주술요, 자장가, 기타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살폈다. 그리고 제주 전승동요는 그 형식상의 특징으로서 행의 수가 짧고, 운율상에서도 대부분 2음보가 주를 이루며, 문체상에서도 반복의 기교를 이용하며 표현기교가 단순한 편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은 제주도 동요의 원시성에서 찾을 수 있고, 내용상의 특성으로는 제재가 바다 동물이 제재로 차용되며, 주술성이 강하고 현실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돈, “성읍 민요의 실상”, 『제주대학교 논문집』(인문학편)(제주:제주대학교, 1985), 제20집.**

성읍리 민요의 실체를 간추리고 1차적인 특성을 살피려는 의도하에 쓰여진 논문이다. 지역적 특성으로서의 성읍은 민속마을이면서 이조 500년간의 고을이었고, 산촌이며, 농촌의 이중적인 구조를 지닌 마을임을 개관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창민요가 흔히 불려지고 있는데, 이는 본토 창민요가 유입되고 변이된 희귀한 모습으로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그 창민요들은 京西道 민요의 영향 아래 구연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본토의 산타령계의 민요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성읍에는 또한 발매며 부르는 아웨기, 홍애기라는 특이한 노동요가 전승되며, 돌방애를 찢으면서 부르는 희귀하고 산만한 연자매 노래도 이곳에서 가지런히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창민요 중에서 관덕정앞과 봉지가, 노동요 중 홍애기·아웨기, 연자매 노래를 그 예로 들고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羅運榮, “濟州島 民謠의 作曲學的 研究(2)”, 『전남대 논문집』(예체능편)(광주:전남대학교, 1984), 제29집.

제주도 민요와 오끼나와 민요를 비교 고찰하고 있다. 오끼나와 음악에서 八重山古謠의 위치와 작곡학적인 분석을 감행하고, 濟州島 民謠를 작곡학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한 후 둘의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상호간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左惠景, “濟州의 傳承 遊戲謠”, 『濟州島 研究』(서울:제주도연구회, 1985), 제2집.

제주 지역에 전승되는 아동놀이와 그에 수반하는 유희요를 수집하고 분류한 후 사실 내용을 살핀 논문이다. 유희요는 발생시기, 유희기능, 구성 인원수, 가창기연 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개똥벌레, 풍뎅이, 방아깨비 등 동물을 가지고 놀면서 부르는 경우와 잠자리, 매미를 잡거나 도롱이를 나오게하며, 달팽이 집속에서 나오게하며 부르는 노래, 또한 식물을 제재로 한노래로서 보리피리를 만들면서, 쇠비름 뿌리를 두드리면서, 풀각시를 만들면서, 실거리 나뭇잎을 따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와는 달리 순수하게 집단적인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호박놀이, 밤놀이, 외하르방놀이, 숨바꼭질 소꿉놀이로 분류되며, 개인놀이와 집단놀이의 놀이형태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개인유희요는 개인의 정서 표출이 강한 반면, 집단유희요에는 대사회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김영돈, “이여도와 제주도”, 『제연』(제주:제주도문제연구회, 1985).

민요에 드러나는 이여도의 실상과 설화에 드러나는 이여도의 실상, 파랑도와의 관계, 이여도 해석의 타당성 및 다른 지역의 경우를 비교하여 이여도의 정체를 밝힌 논문이다.

민요 후렴의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싸 이여싸나” 등의 여운은 조흥 혹은 발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여도는 설화로 구전되는 비실재적인 허구의 섬으로 苦海나 淨土, 此岸과 彼岸의 경계이고 일본의 ‘나라이가나이’와도 비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영돈, “한국민요 속의 제주민요의 모습”, 『구비문학』(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제8집.

한국민요 속에 나타난 제주민요의 모습을 조감한 논문이다. 한정된 몇 측면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주민요에는 노동요의 종류가 흔하고, 제주도에서만 전해지는 노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수인가 하면, 민요 한 요종에도 술한 사실이 전승되고 있다. 둘째로 특히 부요의 비중이 높다. 셋째로 문학성이 우수하다. 넷째로, 제주민요에는 지역적인 특이성이 짙게 깔려있다.

그리고 고정옥이 설정한 민요의 특성 가운데 제주도 민요가 부요가 양적, 질적으로 많고, 생활고가 침식이 되어 있으며, 무용요가 희귀한 것으로 본 점은 그 특성에 타당하나, 제주도 민요에는 운율적 관용구나 애용구가 많고, 리듬장난이 심하며 향토적 다양성이 적다는 견해에는 제주도 민요의 성격으로서 타당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과 노동행위와의 관계”, 『濟州島研究』(서울:제주도연구회, 1985), 제2집.

제주도 민요의 분류에 있어서 노동양태(집단노동인가, 개별적인 노동인가), 노동 동작구조(단일동작인가, 복합동작인가), 노동 동작속도(빠른것과 느린것) 등에 입각하여 그 분류를 시도하고, 아울러 그 음악적인 특성 특히 선율과 형식에 따라 노동행위와의 관계를 살폈다. 제주도 민요는 감정기원적 선율을 지니고 선율 율곽의 완급은 노동양태와 관련된다. 그래서 곧 노동행위는 선율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주도 노동요의 형식중 동일악구 반복형식과 이와 유사한 형식이 많은 것은 집단적 노동성향과 음악 내적인 균형감의 충족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단순한 동일악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영돈, “제주 민요에 드러난 돌”, 『시원 김기동박사 회갑기념논총』(서울:교학사, 1986).

石多인 제주섬의 돌들을 제재화 하여 단순한 소재로 다루거나, 비유의 대상으로서의 돌이 나타난 민요의 각편을 분석하였다. 단순한 소재로서의 돌은 밥의 누로서의 돌, 해녀들이 물질하는 바다의 여로서의 돌, 바닷가에서 멸치잡이할 원담으로서의 돌 등 많은 노래에 그것이 제재로 차용되고 있고, 비유적인 것으로는 우둔한 사람에 비유되는 돌명칭, 이빨로 비유된 것, 외허내실의 오름에 돌, 지표를 표상하는 절벽 등이 나타나고 있다.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 노래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김매는 노래의 위상과 명칭, 전승과 분포, 창법, 기능과 사설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질매는 노래와 속담이 교류되고 있는 양상을 살피고 있다. 우선 노래의 명칭으로서 김매는 소리, 김질매는 소리라고 일컬어지는 게 일반적이며 이것은 밭매기 작업의 일종의 노래이다. 이 김매기노래를 더럼소리(남원읍 하례리), 사디 혹은 사데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의 후렴으로 “어기여랑 사아디야”, “어야두리야 더럼마아라”는 후렴에 힘입은 바 있다. 아웨기, 흥애기(성산읍 난산리, 표선면 성읍리 등)로 불려지기도 하며, 또한 서우젯소리가 끼어들기도 한다.

사설내용은 작업 실태를 위주로 한 것과 민간의 일상성 위주의 사설로 구분되며 일상정의를 노래한 사설내용으로는 삶의 애환, 근면, 애정, 경세, 가족, 협동이 그 내용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서우젯소리는 巫儀式에서 부르는 놀이무가로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석살림’ 제차에서 춤과 함께 불려진다. 특히 선율이 유연하고, 경쾌하며 구성져서 민간에서 주술종교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민요화 하였다.

서우젯소리의 성격으로 (1)무가적 성격, (2)유희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있다.

현재 전승되는 이 노래의 유형으로는 (1)조상굿이나 영등굿에서 가창되는 巫儀형, (2) 오락을 위한 유희형, (3)표선면 성읍을 중심(남원, 성산, 구좌 일대의 중산간 마을도 포함)에서는 김매는 작업시 불려진다. 특히 이 때에는 서우젯소리 후렴과 가락에 김매는 사설을 연결시키기도 한다.

서우젯소리의 가창구성은 서사와 본사 후렴으로 구성되며 율격의 구조는 4음보격, 2음보격, 3음보격이 주를 이룬다. 사설 내용으로는 한풀이로서의 생활고, 신세한탄, 향락, 애정을 설정하고 있고, 신풀이로서는 신의내력, 신의 외모와 거동, 신명과 신놀림 등으로 구성된다고 파악했다.

**김영돈, “해녀출가와 그 민요”, 『백록어문』(제주:제주대국어교육과, 1987), 3·4호 합병호.**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는 부산, 동래, 울산 등지에 출가하기 시작해서 한반도 각 연안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연안 각처와 중국(靑島 및 大蓮),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까지 이르렀다. 해외로 출가할 때, 돛배와 발동선, 기선 등을 이용했고 한반도를 드나들 때는 해녀들은 억세게 노를 저으면서 해녀노래를 불렀다.

해녀노래는 (1)해녀작업 출발, (2)해녀작업, (3)해녀출가과정, (4)해녀출가생활, (5)애정, (6)여정 등을 표출한다. 자수율은 대체로 4:4조이며, 끝맺음이 의문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고, 직설적이며 역동적이다. 이 논문은 해녀노래에 대한 개관적인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필자 자신 역시 이 노래에 대한 연구로서 해녀들의 출가길과 출가생활의 실태와 습속, 소득과 권익 등 민속학적, 경제학적, 법학적 측면에서의 보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부연하고 있다.

**김영돈, “오돌또기”, 『한국민속학』(서울:한국민속학회,1987), 20호.**

오돌또기의 근원과 분포에 대한 해석, 또한 가락이나 사설의 원형은 어느 것인가, 語意와 전설, 현전되는 오돌또기의 가락적 특징을 논하고 오돌또기의 정체를 밝힌 논문이다.

‘오돌또기는 과연 제주도 민요인가?’라는 질문을 설정하고 신재효본, 판소리 『흥부가』나 『가루지기타령』에서도 제주도 오돌또기와 비슷한 사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오돌또기의 고정적인 사설은 구연 빈도가 높은 것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전설 가운데 김복수라는 사람이 안남국의 임춘향을 그리면서 부른 노래라는 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오돌또기가 강릉의 오돌또기와는 별관계가 없는 듯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음악적 특징으로는 나운영, 이보형 등의, 『한국의 민속음악』에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즉 오돌또기의 노래는 ‘레’중지 5음계로 이루어지며, 자유스러운 선율, 리듬의 다양한 변화, 균형잡힌 형식 등으로 보아 제주도 민요 중 가장 세련된 형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홍덕기,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구좌읍 노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구좌읍 노동요를 중심으로 선율을 분석한 논문으로서, (1)민요의 개념, 연구의 범위

와 방법, (2) 한국의 민요를 분류하고 4가지의 구성음의 틀을 추출한 후 5음계 선법의 조건틀과 음역을 살폈다. 제주도민요를 크게 노동요, 타령, 동요로 분류를 시도한 후, 구좌읍의 노동요 가운데 밭밟는 노래, 김매는 소리, 타작소리, 땃돌노래, 방애소리, 노젓는소리, 멀치후리는 소리를 중심으로 선법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밭밟는 노래, 김매는 소리, 타작소리, 땃돌소리 등 4곡은 경기지방의 창부타령이나 방아타령 등과 일치하는 구성틀로 분석했고, 이 가운데 특히 밭밟는 노래의 경우는 '미'에서 '솔'까지 10도 음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는 '솔'에서 '미'까지 6도의 음역을 사용하고 있고, 종지형은 '솔'로 하향종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기능”, 『한국민속학』(서울:민속학회, 1987), 제20호.**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인 기능과 그 형태, 성격을 분석한 논문임. 마적인 기능으로는 신집의 기능, 신비력의 기능, 치병제의 기능, 정화의 기능을 들었다. 특히 제주도의 민요중 흥생이소리나, 망건소리, 팔자노래에는 정화의 기능이 강한데, 현실의 음악적 반영에 따르는 미적반응을 통하여 감정환기의 분위기를 창출하여 심적인 정화를 얻는다고 하고 있다.

**한기홍, “멀치후리는 노래의 실상”, 『민요론집』 (제주:민요학회, 1988), 제1호.**

멀치 후리는 노래는 멀치를 후리면서 부르는 남녀 공동의 노동요이다. 멜 후림소리, 멜후리는 노래, 닷댕기는 소리라고도 한다. 곧 해녀노래, 뱃노래, 땃목젓는 노래와 더불어 어서 어업요에 속한다. 음력 3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지나 대개 5-6월에 많은 멀치가 잡히며 주로 밤중에 공동으로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멀치어장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는 배를 당선, 멜당선, 상선이라고 부르고 보통 1-2척이 나가며 1척에 2-3명이 탄다. 그물을 신고서 나가는 배는 '망선'이라고 하며 닷배는 그물을 조절하여 멀치때를 가두는 기능을 한다.

멀치 후리기 작업은 집단 어로작업이므로 주민들끼리 친선도모와 협력을 위한契가 설정되고, 공동출자, 공동어로, 공동분배를 한다.

이호, 광지, 협재, 모슬포, 화순, 표선, 세화, 삼양 등이 실제로 멀치 작업이 행하던 지역이고, 함덕, 동김령, 신양, 신천 등이 이 노래가 전승되던 지역이다. 가창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으나, 여성이 작업에 참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들에 의해서 전승되기도 한다. 사실은 작업실태를 노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거친바다에서 작업을 함으로서 저절로 작업의 실태를 사실내용에 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오승식,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안덕면 노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제주도 안덕면 지역의 노동요를 중심으로 음악적 요소를 추출하고 분석한 논문. 특히 선율의 구조, 리듬의 형태를 중심으로 (1)따비질소리, (2)밭볼리는소리, (3)사대소리, (4)마당질소리, (5)ㄱ레ㄱ는 소리, (6)물방애소리, (7)남방애소리, (8)방앗돌굴리는 소리, (9)토불미소리, (10)디딤불미소리, (11)뚝뚝불미소리, (12)출비는소리, (13)툇질소리, (14)낭개는 소리들의 노래를 분석하였다.

안덕면 노동요의 선법은 도레미솔라 5음음계가 지배적이고, 계면조와 평조선법에 해당하는 노래도 있다. 선율의 진행은 최고음에서 최저음으로 내려오는 하행선율을 이룬다. 종지 형태는 장2도 하행종지가 많고, 장2도 상행종지, 단3도 하행종지, 단3도 상행종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리듬의 형태는 자유리듬이며 박자가 고정된 경우로 4박자와 2박자, 12박, 8박이 있다.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부락지(1)-(4)』(탐라문화총서 6-10). 제주:제주 탐라문화연구소, 1989-1991.**

『제주도 부락지』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과 인문대학 국문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제주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조사분야는 마을개황을 먼저 기술하고, 일부 마을에는 세시풍속을 첨가 조사하였다. 사회배경은 지리적 환경, 역사적환경, 인문환경, 산업구조 등을 조사 기술함으로써 문화배경으로서의 마을을 개관하였다. 방언분야는 산업, 어업,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의 어휘 및 기본동사 어휘 등을 조사 수록하고 용례예문을 일일이 실었다. 덧붙여서 마을의 지명이나 해안명도 조사 수록했다.

민요는 노동요, 의식요, 동요 등을 녹음 전사하여 수록하였고,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을 구연 그대로 현장론적으로 기술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드러내어 주었다. 신앙분야에서는 공인종교의 상황과 부락신앙, 개인신앙을 다루고 있으며 세시풍속도 나타나는 지역의 것을 채록하였다.

대부분이 구비전승의 문학에 바탕을 둔 조사이고, 이외에도 민간공예, 민속놀이, 친족조직, 노동, 계조직등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락지적인 성격이 다소 미흡한 편이나 제주도 여러 지역의 집중적인 조사자료로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각권에 나타나는 조사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 1984-1988년까지의 조사

-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조사 (1984), 『백록어문』 창간호
-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조사 (1984), 『백록어문』 창간호
-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조사 (1985), 『백록어문』 제2집
-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조사 (1987), 『백록어문』 제5집
- 북제주군 구좌읍 김령리조사 (1988), 『백록어문』 제6집

제2권;

-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78,8)국교,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80,7)국교, 국문,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83,7)국교, 『학술조사보고서』 제8집
- 북제주군 애월읍 팍지리(83,8)국문, 『학술조사보고서』 제8집

제3권;

-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72,8)국문, 『국문학보』 제4집

남제주군 구좌면 연평리(73,8)국문, 『국문학보』 제5집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74,2)제대박물관, 『해촌생활보고서』, 학도호국단  
 남제주군 성산면 오조리(74,7)제대박물관, 『해촌생활보고서』, 학도호국단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74,8)국문, 『국문학보』 제6집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85,8)국문, 『국문학보』 제8집

제4권;

서귀포시 중문동,(중문리75,8)국문, 『국문학보』 제7집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77,8)국문, 『학술조사보고서』 제6집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87,7)국문, 『국문학보』 제9집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89,8)국문, 『국문학보』 제10집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89,8)국교, 『백록어문』 제7집

자료의 영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시기별로, 혹은 군단위나 읍단위로 묶어서 수록되었으면 자료집이 더욱 체계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 5.1990년대

**김영돈, “제주도지역의 구비문학 현지조사과정과 반성”, 『구비문학』9집 (성남: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90.**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의 제주도 편의 자료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열거하였다. 우선 제주어 표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주석을 어떻게 다느냐, 또한 창법에 따른 민요사설의 표기문제와 구비문학대계 해제 문제등을 거론하고 『한국설화대계』, 『한국민요대계』, 『한국무가대계』의 간행을 제안했다.

**강경수,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 -제주시의 노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제주시에 분포된 노동요의 음악적인 요소를 분석한 논문이다. 각 요종마다 가창방법, 구성음과 음계, 종지음과 음조직, 리듬의 요소와 선율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요종으로는 밭밟는 소리(1)·(2), 김매는 소리(1)·(2), 타작소리, 밧돌소리, 노젓는 소리(1)·(2), 풀베는 소리, 망건소리 등이다.

**강문유,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상여노래의 배경, 사설의 유형, 기능과 가창형식, 주제를 중심으로 민속학, 문학적으로 고찰한 논문임. 상여노래는 장례의식의 절차 중에서 운상이나 성분과정에서 특히 불려지고 있는 노래들이다. 사설이 고정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고정형으로는 망자와의 이별을 다룬 이별형과 명산지와 산수열거로 점철된 풍수지리형, 불교의 회심곡 사설로

이루어진 회심곡형이 있다. 그 기능은 상여 운반적인 기능과 슬픔을 해소하기 위한 정화적 기능, 구복적인 기능으로 나타난다.

사설의 주제는 망자와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을 이기고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과, 망자의 입을 빌어 말하는 효의 권계, 망자를 위로 하는 내용, 인생무상과 삶의 허무등이 주를 이룬다.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통속민요 연구편-』. 제주:신아문화사, 1991.**

제주도 통속민요의 실태와 일반적인 성격을 개관하고 있다. 통속민요를 일반적인 통속민요와 특징적인 통속민요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로는 오돌또기와 너영나영, 이야홍타령을, 후자로는 산천초목, 봉지가, 관덕정앞, 용천검, 동풍가, 중타령, 계화타령, 사랑가, 길군악,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연행적인 요소와 음악적 요소, 사실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좌혜경, “제주도 민요의 서술체 구성에 관한 고찰”, 『耽羅文化』(제주: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제11호, pp.17-41.**

제주도 민요의 서술구조를 밝힌 논문으로서 제주도 민요각편의 설정방향이 미시적 시점과 거시적인 시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예를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살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능요에서 그 각편의 사실 성격을 세가지의 층에 따라 살폈는데 기능성의 유무, 서정성, 교술성, 서사성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층위에 따라서 민요사설의 형태를 표현수법, 창법, 작품의 행 수, 후렴의 특성을 살폈다. 그리고 서술체의 구성과정을 평노래와 맷돌노래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서울:예술, 1992.**

제주도의 노동요를 수집하고 음악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지금까지 저자의 제주도 민요에 관련된 논문들을 한 곳에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했다. 목차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토속민요란 무엇인가’에서 민요와 토속민요와의 관계, 토속민요의 개념, 특성, 구분, 의의 등을 조명했고, 둘째로 ‘제주도 토속민요개관’에서 제주도 토속민요의 형성 배경, 성격, 분류, 자료문제, 연구실태 등을, 셋째로 ‘제주도의 노동요 개관’에서는 노동요의 각 요종별 음악적인 분석과 사실의 구조등을 살폈다. 제주도의 노동요의 음악적, 총체론적, 상호관련적, 기능적 접근을 시도했으며, 제주도 노동요의 자료목록을 아울러 기재하고 있다.

**좌혜경, “제주도 민요의 전승변이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제주: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제12호, pp. 17-40.**

제주도 민요의 전승변이에 관해서 살핀 논문으로서 그 전승변이는 작품 외부에서 일

어나는 것과 내부에서의 변이로 크게 구분된다고 보았다. 외부적인 변이로서 통시적인 측면에서 볼수있는 것은 연속성을 띤 것, 비연속성을 띤 것, 비연속적이기는 하나 과거 회상의 약화로 1차 기억의 노래가 달라진 것 등을 들 수 있다.

공시적인 변이는 지역적인 변이이다. 물리적인 공간이동으로서 창자의 이동에 관한 것, 지역의 노래 창자 층의 깊이에 따른 것을 들 수 있다. 기능적인 변이로는 기능적 성격의 변이와 기능성의 이탈로 서정화 된 경우, 창민요화, 기능성의 드라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 측면의 변이로 명칭의 변이, 동일어휘의 수사체계의 다양성, 탈락과 삽입, 지역성, 시대성, 인접한 시가군의 교섭 등을 들 수 있다.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제주도에 전승되는 여러 기능을 지닌 민요 중에서 시집살이를 제재로 한 민요를 분석한 논문이다. 노동요에는 맷돌, 방아, 양태노래처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이루어지며, 타령이나 잡가에서도 나타난다. 사춘성남요는 대개 2음보이며, 노동의 박자와 가락에 지배를 받아서 율격적 변화와 후렴구를 동반하기도 하고 독창으로 불려진 경우는 서정화 된다. 또한 장시간으로 불리는 경우는 서사화가 되기도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시집식구와의 갈등보다는 첩과의 갈등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평민 여성들의 정서는 현실을 체념하지 않고, 부정과 대결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인식을 강하게 반영한다.

표현상의 특징은 비유적 소재의 일상성, 구체성, 지역성을 반영하며, 미적체험은 골계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비판과 풍자가 나타나고 있다.

#### **김인규, “제주민요, 서우젯소리의 분석적연구”, 『제주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제주대학교, 1992).**

서우젯소리 민요의 선율적인 특성을 가로 정간보의 기보방식을 사용해서 고찰하고 있다.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인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 민요편』의 9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우젯소리는 4분음표의 4박이 한장단을 구성하는데, 이는 곧 8분의 12박이 되며, 두 장단의 메기는 소리와 또 다른 두 장단으로 된 받는 소리의 네 장단이 하나의 절을 이루며 장단별로 네개의 악구로 구성된다.

각 장단, 즉 각 악구는 주로 ‘도-라-솔’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절의 악구인 받는 소리 앞장단은 기본 구조인 ‘도-라-솔’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구성되고, 실제 노래되는 선율은 선율의 첨가와 생략, 장식음의 사용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로 구성되는 네개 장단의 서우젯소리 각절의 선율은 aaba의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제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제주:제주문화방송, 1992.**

『한국민요대전』의 ‘제주도편’ 음반에 수록된 제주 민요의 사설과 악보, 가창자와 마에 관한 해설집이다. 한승훈이 주축이 되어 1989년에 녹음한 500곡의 자료, 1991년

에 수집한 자료 20곡 등에서 선곡한 자료이다. 선곡의 기준은 음악과 문학 면에서 원형에 가까운 것을 택하고 지역성을 고려했으며, 지역, 또는 가창자에 따라 변이곡들도 나타내었다. 명칭표기는 현지 명칭을 앞세우고 표준어를 괄호 속에, 현지 명칭이 많을 때는 보편적인 것을 택했다.

수집대상 지역은 조천읍의 신촌, 조천, 선흥, 구좌읍의 동김령, 행원, 덕천, 송당,하도, 성산읍의 온평, 삼달, 표선면의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남원읍의 신흥, 하례, 서귀포시 보목동,예래동, 대포동, 법환동, 안덕면의 상천, 대평, 덕수, 대정읍의 하모,신평, 고산, 용수, 신창, 한림읍의 금릉, 명월,남읍,어읍, 장전, 금덕, 고성, 광령, 신업, 동귀리 등이다. 대부분의 제주도 민요가 망라되고 있으며 조사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몇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로 신뢰성이 높은 가치있는 자료이다.

김영돈의 제주 민요의 배경과 분류, 한승훈의 제주지역 민요의 특징 중 발가는 노래, 따비왓가는 노래, 흥당이 부수는 노래, 밭밟는 노래, 밭매는 노래, 나무내리는 노래, 연자맷돌 끌어내리는 노래, 연자맷돌질 노래, 꿀베는 노래를 해설하고 있으며 각 노래마다 음악적인 성격, 마을, 창자해설이 실려있다. 채보된 자료와 사설이 제주도 민요의 현장을 보는 것처럼 현장감있게 조사된 자료이다.

**좌혜경, “제주민요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제주:제주문인협회, 1992), 제22호, pp.162-72.**

제주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그 작품들 속에 소재로 등장하는 제주민요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고찰한 논문.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민요가 삽입되는 경우는 작중인물들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작가가 목표하는 주제를 집약적으로 현시하는 경우이거나 상황의 중층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도된 경우이며, 시인 경우는 사설의 직접적인 원용보다는 오히려 재구성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곧 비록 민요시를 표방하면서 민요적 정서와 언어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했다라도 작가의 개인적 의도가 내포되어 민요의 생명력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민요를 수용하거나 변용하여 재창작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을 넷으로 정리하였다.

**좌혜경, “제주도 민요사설에 드러난 통합성”, 『제주도 연구』(서울:제주도연구회, 1992), 제9집, pp. 101-21.**

제주도 민요에 드러나는 통합성을 요종별 상호교섭의 시각으로 다음 두가지의 유형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파악했다. 한 창자에 의해 구연되는 여러 기연의 노래가 그 사설 내용은 상당부분이 넘나든다. 또한 같은 지역, 동일 기연의 노래가 비록 여러 창자에 의해서 불려지더라도 집단내부에서 공유될 수 있는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종의 교섭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설에 등장하는 고난과 극복의 주제를 관련시켜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소리와 노래의 전개적 통합인데, 이는 전달과 표현에 대한 효과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濟州島言語民俗論叢』(현용준박사회갑논총)(제주: 제주문화, 1992), 169-194.

노래방식 중에서 교창 형식의 특이성 및 노래 자체를 화제로 삼고 있는 화제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제주도 민요의 유형적 분포와 노래의 인식, 그 문학적 성격을 다룬 논문임. 노래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고는 제주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광복성과 통용성, 고태성, 보편성을 지닌다. 창자들의 의식속에서 ‘-노래’라고 뜻하는 것은 (1) 노동을 위한 조율의 기능; 가)노동축진의 효과, 나) 정신적 분발의 효과, 다) 질서 부여의 효과와 (2)심리상태의 언어적 전환의 기능; 가)갈등의 표출, 나)대리성취, 다)갈등의 억압과 은폐, 라)언어적 반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래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 노동의 조율을 지향하는 문맥으로 된 것에는 ‘각각 하기’의 교환창이 별로 많지 않다. 이는 집단 노래가 갖는 공동성을 보여준다. ‘각각 하기’가 보여주는 것은 개인성과 개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갈등의 언어적 전환으로서의 노래를 드러내는 문맥이다.

간접적인 시사를 통한 삶의 모습에서 산과 물로 된 폐쇄된 공간에 서있는 현실이 노래에서 나타난다. 곧 문학이 괴로운 삶의 몫을 증명한다. 곧 괴로운 삶의 모습이 정서에 함몰되지 않고서 객관화하고 해학적인 태도로 임한다. 이는 국문학의 표편적인 양상이어서 우리 문학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윤치부, “제주민요의 낙원상실의 모티브”, 『제주언어민속론총』(제주:제주문화, 1992), pp. 215-240.

제주에 고려, 조선 등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당대의 통치 원리가 굴절, 확인되는 변방이었다. 지배계급의 폭력, 처첩의 가족제도 및 조혼제도는 참혹한 생활을 파생시켰다. 자연적 환경으로 사나운 비바람으로 흉년의 연속, 바다는 운명적인 생활의 공간, 절해고도라는 자연적 의미에서 변방이라는 정치, 사회적인 의미가 강화되는 낙원상실의 지역이다. 당이 오백이고 절이 오백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윤리의 타락은 낙원의 상실을 가져오게 했다.

박상규, “제주무가와 민요에 나타난 어휘의 성격고”, 『제주언어민속론총』(제주:제주문화, 1992), pp.99-116.

민요에 나타난 어휘를 중심으로 언어학적인 방법에 따라 민요의 역사나 시대성을 밝힌 논문임. 큰애기덜의 ‘덜’과 ‘심방’을 어학적인 면, 의미적인 측면에서 살피고 있음.

櫻井哲男,(좌혜경역) “소리의 전개 - 제주도 민속음악개설”, 『제주언어민속론총』(제주:제주문화, 1992), pp. 613-24.

민속음악이라는 개념규정을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1) 문자사회의 기층문화, 2)구두전승, 3)음악적 성격을 갖추고 일반의 언어표현 양식과는 다르며 적어도 2세대 이상 걸쳐서 전승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의했다.

역사적 전개로서의 변용으로 서우젯소리와 오돌또기, 해녀노래, 아이들의 전승유희요의 역사성을 들고 있다. 지역적 전개로서 변이는 서우젯소리, 김매는 노래, 밭불리는 노래, 타작노래, 자장가 등이 지역적으로 양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돈, “제주민요의 모습과 빛깔”, 『민요론집』(제주:민요학회편, 1993), 제2호, pp.55-75.**

제주민요의 분포와 각 종류마다의 실상을 농업요, 제분요, 어업요, 별채요, 관망요, 잡역요로 나누어서 살피고 노동요의 분포를 도내 전역과 일부 지역에 불려지는 정도에 따라 민요의 지역적 분포 양상을 고려하여 살폈다. 의식요의 전승과 무용, 유희요의 희귀성을 살피고, 제주민요의 문학성이 빼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각 요종별에 따르는 분포, 전승실태, 전승자, 창법, 기능, 제재, 내용, 표현 등의 다각적인 고찰과 국내외의 민요 비교연구의 문제를 그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필자가 제주도민요와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된 여러 논문의 결론적 고찰의 성격을 띠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문무병, “제주 민요에 나타난 무가”, 『민요론집』(제주:민요학회편, 1993), 제2호, pp. 111-144.**

민요와 신명에 대해서 논하고, 일노래의 특성을 역사 경험의 체험적 정서와 노동생산의 생산적 정서, 현실비판의 노래로 정리하고 민요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들었다. ‘민요’에 나타난 무가는 신명풀이의 노래가 노동의 신명으로 전환된다. 무가의 사설이 민요의 사설에 넘나들기도 하는데, 이의 대표적인 예로 특히 서우젯소리의 경우를 들고 있다. 본래 무가에서 비롯한 이 노래의 구연이 김매는 노래나 멀치후리는 소리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무가의 사설이나 노래가 노동의 신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노래의 정서적인 기능으로 변환된 양상이 제주도 민요의 한 특징으로 상정될 수 있음을 필자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승훈,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실태”, 『민요론집』(제주:민요학회편, 1993), 제2호, pp.403-428.**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즉 이 노래들은 (1) 구좌, 조천의 어촌민요권의 진사데 찌른 사데의 구분이 없는 사데소리, (2) 제주, 애월읍 민요권의 진사데는 너굽이, 쇠굽이 사데, (3) 서부, 제주민요권, (4) 대정민요권, (5) 예래, 강정민요권, (6) 정의민요권의 사데소리와 진아웨기, (7) 구좌, 조천읍 중산촌지역으로 각각 세분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변성구, “제주 민요의 후렴”, 『민요론집』(제주:민요학회편, 1993), 제2호, pp.267-294.**

제주도 민요에 나타나는 후렴의 유형과 기능을 추출한 논문이다. 형태 및 위치상에서 (1)고정체계의 후렴, (2)준고정체계의 후렴, (3)비고정체계의 후렴 등으로 대별하였다. 구성요소 상에서 살피면, (1)성음후렴, (2)어사후렴, (3)성음·어사혼성 후렴이 있고,

그 기능으로는 (1)조흥, 조율적 기능, (2)휴식, 전환의 기능, (3)도창, 결사적 기능이 있다. 그리고 후렴의 율격적 위상으로 (1)기능요인 경우 1음보격, 2음보격, 3음보격으로 구분하고, (2)비기능 후렴의 율격으로는 단일율격으로 3음보격, 4음보격, 복합율격으로 3음보의 중첩과 2·3음보 결합, 3·4음보 결합으로 설정했다.

**좌혜경, “민요의 명칭고”, 『제주문화연구』(현지 김영돈박사 화갑기념 논문집)(제주:제주문화, 1993), pp. 21-39.**

민요의 명칭에 있어 그 붙임새가 ‘-노래’, ‘-소리’, ‘-가’, ‘-요’로 나타나는 노래들을 실제 구연되는 양상별로 대별하여 고찰하고, 그 설정된 특징들을 추출하였다.

‘-소리’인 경우는 기능성을 직접 표출하는 제목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노래’인 경우는 서정성을 표출하는 기능을 지닌 것에서 나타난다. 대부분 민요에 붙여지는 명칭의 설정 양상은 그 노래의 기능성, 지역성, 후렴, 음악적인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명칭 정리에 관해서는 현지의 고정된 요명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그것을 앞세우고 괄호 안에 표준어명을 부기해서 나타내는 한 방식을 제기했다.

**김대행, “제주 노동요의 민요론적 가치”, 『제주문화연구』(제주:제주문화, 1993), pp.41-61.**

노동요의 노래동기, 제주 노동요의 창법의 특이성, 특히 교환창의 네가지 유형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제주 노동요와 민요 논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환창의 네가지의 유형은 이어받기와 반복하기, 각각하기에 논평하기를 추가함. 이러한 네가지 유형은 단순히 창법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창법은 노래의 의도가 구조화의 요소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하기에서는 동화의 원리, 이어받기에는 대화의 원리가, 각각하기와 독백의 원리, 논평하기와 교감의 원리인데 논평하기에서는 사설마다의 의미론적 완결성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사설의 율격적인 호흡은 장형화 된다. 독자의 교감과 더불어 판의 형성과 열린 무대의 극적 진행을 살피게 된다. 이러한 동질성의 추구는 구심적이면서 역동적인 긴장감을 형성한다. 그래서 제주도 민요의 이러한 네가지의 교환창과 역동적인 긴장감이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한 확인이면서 민요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다고 보고있다.

**허남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의의-제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제주문화연구』(제주:제주문화, 1993), pp. 63-80.**

기존의 시집살이 노래 유형이 서사민요나 혹은 서정적 서사라는 장르규정에 의의를 제기한 논문임.

길쌈 작업과 함께 불려지는 시집살이 노래가 제주도의 맷돌방아노래에 불려지는 시집살이 노래로의 기능변환과 가창 방식이 바뀔에 따라서 서정성을 띤 노래로 불려지는 점을 들어 시집살이요의 서사적인 한계성을 들었다. 제주의 시집살이는 주정적이며, 화자의 심리적 상황이나 주제적 강화에 필요한 인물이 있음을 들었다. 아울러 이것은 서사적인 것과 서정적인 것이 공존하는 양식이라는 점을 들었다.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유형 분석”, 『제주문화연구』(제주:제주문화, 1993), pp. 81-134.

해녀노래의 기능적 특성과 사설을 분석하고 유형구조를 살핀 논문이다. 해녀노래의 명칭으로는 줌녀소리, 해녀질소리, 줌수질소리, 네젓는소리, 해녀뱃노래 등으로 일컬어진다. 노를 젓는 시간과 장소, 동작이 노래의 가락이나 사설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서 기능관련 사설이 주를 이루고 한본토로 출가하면서 불리는 경우는 신세한탄, 사랑, 인생무상등 해녀들의 일상적인 정의를 노래하게 된다.

해녀노래의 기능성의 유형은 해녀작업의 출발과 실패(실상,기원, 한계,고통), 출가과정(노젓는 기백, 노젓는 바다의 상황, 노젓는 고통, 출가뱃길), 출가생활 등이며 서정성으로는 신세한탄, 이별, 연모, 인생무상, 가족걱정, 기타 등이다. 미학적 연구와 의미구조, 상상력의 구조, 민요의 서사화 과정 등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강영봉, “제주민요의 몇 어휘”, 『제주문화연구』(제주:제주문화, 1993), pp. 355-364.

김영돈의 『제주도 민요 연구(상)』에 수록된 민요 중에서 미상으로 된 어휘 물음표가 붙은 어휘, 각주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은 바로 석시, 수가지, 그신새, 동목, 우리통, 헤이리, 돛자라 등 7개 어휘가 이에 해당한다.

‘석시(석)’은 고삐, 혁, 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수가지’는 물가지이며, ‘그신새’는 컴컴한 밤, 지상에 한없이 큰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는 혹독한 귀신으로 볼 수 있다. ‘동목’은 곱팡이의 뜻인 곱이 동에 연결 동곶이 되었다가 음운도치로 동곶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통’은 울타리의 경계목, ‘헤이리’는 물고기의 명칭, ‘돛자라’는 돛(豚)에서 파생된 언어로 빛깔이 두드러진 자라로 보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서울:집문당, 1993.

제주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동요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료편에서는 공통적인 속성을 내포한 종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아홉개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붙였다. 분류로서는 동물요, 식물요, 천체기상요, 풍소요, 어희요, 자장가, 유희요, 기타요, 사회풍자요로 나눌 수 있다. 각 노래마다 나타나는 내용을 살피고 제주 전승동요의 특성을 형식상, 내용상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김영돈 편저, 『제주의 민요』. 서울:신아문화사, 1993.

이 책은 우선 민요의 해설편과 자료편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민요해설에 있어서는 민요의 실상파악과 그 배경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 제주 민요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주 민요를 분류했으며, 민요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돌, 이어도를 소재로 한 민요를 분석하고 요별 고찰로서 오돌또기,산천초목,땃치후리는 노래,방앗돌굴리는 노래, 해녀노래, 제주동요를 고찰하고 있다.

자료 편은 제주민요를 총괄적으로 수집하여 제주도 민요의 실상을 파악하려고 한 노

력이 역력하다. 가능한 한 특이한 요종을 우선 선정하고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노래를 실을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 노동요인 경우는 현지요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주어의 어법과 표기에 따라 채록을 하고, 가창 현장을 중시하고 있다. 각 시, 군의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조망을 위해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선정하고 5개 읍, 면, 동 식으로 수록하고 있다. 대상지역으로 제주시는 일도이동, 3도이동, 용담2,3동, 건입동의 자료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중문, 대포, 보목, 예래, 대륜동의 민요가 정리되었다. 북제주군의 민요로서 구좌읍의 동김령리, 송당리, 덕천리, 행원리, 하모리 민요, 조천읍의 조천리,신촌리,선흘1리, 애월읍의 광령리, 광지리, 남읍리,장전리,어음2리 한림읍의 귀덕, 명월, 금릉, 한경면 중에서는 신창, 용수, 고산의 것이 수집정리되었다. 또 남제주군의 자료는 대정읍 하모,신평리, 안덕면 덕수,상천리, 남원읍의 하례, 신흥2리, 표선면의 성읍1,2리, 가시리, 성산읍의 삼달2리, 온평리이다.

**황혜령, “민요선율의 변이양상에 대한 일 고찰 - 제주 성읍민요와 육지부 민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성읍의 창민요를 육지부의 민요의 변이로서 비교 연구한 논문이다. 성읍의 통속민요에 영향을 준 민요는 경서도 민요(경기, 황해,평안)로서, 특히 육지 사당패들의 노래인 산타령계 민요와 관계가 깊다. 계화타령은 전북 남원의 계화타령, 함양의 양잠가의 사설과 선율을 비교하였다. 또 산천초목과 용천검, 길군악의 세곡은 육지의 사당패 소리와 리듬의 형태, 사설, 음악적 기능이 일부분 유사함이 발견된다. 용천검은 진도 꽃방아타령의 선율이 유사하다. 제주 길군악, 강릉지방의 영산홍, 황해도 재령지방의 길군악은 모두 행진곡으로 그 리듬형태가 같은 느낌을 준다. 제주 동풍가를 서도 소리인 난봉가류와 비교한 결과 각각 독특한 형태를 지니면서도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제주의 신목사 타령은 경기지역의 구조 풍년가(사철가)와 유사하며, 오돌또기는 경기지방의 오돌독과 유사하며, 이것은 제주에서 육지부로 넘어간 형태가 아닐까하고 가정하였다. (이상의 글은, 좌혜경, 제주섬의 노래,(국학자료원, 1995)에 실고 있음)

**金大行, “濟州民謠의 遮斷構造와 그 文化的 意味”, 『민요론집』, 제3호, (제주:민요학회), 1994.**

제주도 노동요 교환장 가운데 논평하기의 한예를 보면 甲과 乙두사람이 허조 뿐만이 아닌 각자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곧 앞의 말이 뒤의 말에 의해서 차단을 당하거나 귀결점을 향한 방향에서 일탈을 하게 된다.이러한 심리적인 機制는 협동의 원리로 벗어나서 異化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는 각각하기는 ‘거리두기’의 심리적 표현이고 논평하기는 ‘바라보기’의 심리적인 기제이다.그리고 이러한 異化에 의한 ‘바라보기’의 遮斷構造가 갖는 문화적 의미는 미적효과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는 데, 해학적 효과의 형성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셈이다. 곧 투쟁에 의한 극복보다는 웃음에 의한 차단을 지향한 특성이 우리 문화의 특성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압축하는 언어형식이라는 점이다.

좌혜경, “高橋亨著, 濟州島の 民謠, 歴史와 社會學的 觀點에서 살핀 濟州民謠”(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解題, 『담라문화』, 담라문화연구소, 1994.

高橋亨著, 『濟州島の 民謠』를 분석하고 해제한 글, 日本天理大學 오야사도 연구소 東方學紀要 제1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원고의 표지제명은 朝鮮學叢書 제1권으로 되어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제주도, 제2장:제주의 민요, 제3장:섬여자, 제4장:맷돌, 방아노래, 제5장:양태, 망건, 해녀요, 제6장:자장가, 제7장:농요, 제8장:京城의 노래, 제9장:뱃노래, 제10장:土役謠와 매장요, 제11장: 진상과 진상요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료의 수집이 1929년에 본인이 제주를 직접 답사하고 돌아 간 뒤에 그 당시 경성제대 학생이었던 조운제와 제주 출신 에게 의뢰 자료를 수집한다. 해방이후 일본에 돌아간 다음에 자료를 편집하고 자료를 해석하였다. 특히 그가 역사학자이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 하였고, 사회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접근하려고 했던 점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민요의 가치를 일본의 萬葉과 중국의 詩經에 비견하였으며, 가장 조선적인 문학이라고 주장하고 그 문학성에 감탄하였다.

좌혜경, “민요자료의 사회, 역사적 측면의 해석, 『한국민요학』(서울:한국민요학회) 제2집, 1994.

高橋亨著, 『濟州島の 民謠』 중에서 제4장: 맷돌, 방아 노래 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표기법을 수정하고, 해제도 곁드리고 있다.

좌혜경,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해제”, 『민요론집』, 제3호, (제주:민요학회), 1994.

제주 민요 초기 연구(1920년대)부터 1993년 까지의 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시대구분하고 자료를 정리 해제를하고 있다. 제주도 민요 연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그 시대구분은 1, 1920-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로 구분하고 있다.

韓基興,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론집』, 제3호, (제주:민요학회), 1994.

조천이라는 관변지역의 민요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논문이다. 현장론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전승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관변 층인 창자인 기녀는 창민요를 전승시켰고, 노동집단은 노동요를 전승하게 된다. 다른 지역과 차이는 특히 한 본토의 사설이 자주 넘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조천 포구를 중심으로 한 본토를 잇는 관문으로 문화유입이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창니요가 많이 나타나고 개방적인 사설이 많이 나게 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겠다.

韓承勳, “상천민요기행”, 『민요론집』, 제3호, (제주:민요학회), 1994.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를 찾아서 현지답사한 보고서적인 성격이 강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상천리의 사회적 배경과, 소리꾼 박정환씨의 ‘낭내리는 소리’와 ‘낭꾼

치는 소리' '낭씨는 소리' 들을 소개하고 있다

**고재환, “濟州島 俗談과 民謠謠詞의 相關性”, 『민요론집』, 제4호, (제주:민요학회),1995.**

제주도 속담 1000여 편과 『제주도 민요연구 상』(일조각, 1965)에 수록된 민요 노랫말을 대비해 본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그형태를 同一型和 類似型, 變異型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내용적 상관관계는 人情, 生計, 理事로 나타난다고 했다. 구비문학인 이상 넘나들이 심하고 고정적인 句가 민간에 전승되고 있어서 이 상관성은 당연하다

**김영돈, “제주 민요의 문학성”, 『민요론집』, 제4호, (제주:민요학회),1995.**

<맷돌노래>와 <방아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몇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문학성을 고찰하여 본 것이다. 특히 비유의 우수성, 반복과 점층적인 강조, 직서적인 표현, 의문형 종결어미,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언어의 차용, 어휘의 연상작용 등이 민요의 문학적 우수성을 가져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김종식, “시집살이요 비교연구”, 『민요론집』, 제4호, (제주:민요학회),1995.**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을 보완했다. 濟州와 慶北, 全南 지방의 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시집살이요의 유형, 문체 의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 지역 시집살이에 나타난 특징은 여성들이 노동현장에 뛰어들고 어려움 상황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노래가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며,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서 경북과 전남인 경우는 우회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변성구, “<발밟는 노래>의 演行方式과 辭說”, 『민요론집』, 제4호, (제주:민요학회),1995.**

제주도 발밟는 노래가 주로 불려지는 제주도 식의 조농사 관행을 살피고, 발밟는 노래의 연행 방식과 사실구조를 살핀 논문임. 의미구와 무의미구의 사실구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의 복잡한 통합유형을 살피고 있다. 사실의 내용은 작업실태, 농사관행과 기술, 날씨예측, 풍년기원 등의 기능적인 사실과 함께 생활 및 노동의 고통, 인생무상, 연정 등의 정서적 기능이 중심이 된다.

**좌혜경, “민요자료 조사의 과제와 방법”. 『백록어문』, 제11집, 백록어문학회, 1995.**

자료조사의 가치와 수집과 방법, 조사의 실제, 제주 민요 표기의 문제, 자료의 효율적 이용 등 기존의 백록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술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한 글

**제주문화자료 총서, 『제주의 민속』 3, 제주도, 1995.**

설화, 민요, 속담 중에서 김영돈과 좌혜경이 민요를 담당했다. 김영돈은 濟州民의 삶과 民謠, 濟州民謠 傳承의 實際 중에서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제주민요의 문학성을 밝혔다. 또 좌혜경은 “문헌해제 작업을 바탕으로 한 제주민요 연구사”와 그리고 기존의 분류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민요의 분류”, 그리고 기존의 제주도 민요 “창자별 구분에 따른 민요유형”을 정리했다. 또 사설에 나타난 제주민요의 변이성을 통시적, 공시적 기능적 측면에서 밝혔다.

**좌혜경편,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高橋亨著, 『濟州島の 民謠』를 번역하고, 제주도 민요의 문헌해제를 특별 부록으로 삼고 있다. 특히 원자료가 제주도 방언의 표기가 부실한 점에 비추어서 방언을 현지의 실정에 맞게 교정을 하였다. 원자료적 가치가 1920-1930년대의 자료가 주 자료이어서 지금 1960년대 이후의 자료 만이 자료집으로 나온 실정에 따르면 자료의 소개 만으로도 값지다는 평가를 얻을 수가 있으며 특히 1960년대나 혹은 현존의 자료들의 원형을 재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외국인에게 비친 우리노래의 감상도 재미 있으며, 특히 저자가 일본 강점기하의 경성제대 교수였다는 점에서 식민지 정책하에서 일인들의 연구의 관점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좌혜경, “성님성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강의실 밖에서 배우는 민속학』, 민속학회. 1995.**

제주도 민요 중에서 시집살이를 제재로 한 노래들을 선택, 감상한 글이다.

**좌혜경, 『民謠詩學研究』, 국학자료원, 1996.**

민요의 시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장르의 특성과 연구방법에서 밝히고, 의미구성론 유형구조론, 서술론, 전승변이론적인 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92년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하고 대폭적으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민요자료조사와 조사된 자료의 현대화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 제3부에서는 기존의 한국민요 연구논저를 해제하여 실고 있다.

**김영돈, “민요와 속담의 교류”, 『민요론집』, 제5호, (제주:민요학회), 1997.**

민요와 타구비문학과와의 교류-제주도 민요와 속담을 중심으로-, 제대논문집 10집, 제주대학교, 1979를 보완하고 수정한 논문임.

**좌혜경, “제주민요개관”, 『임석재 한국민요집』-연구편, 집문당, 1997.**

임석재가 수집한 한국 민요집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전국의 민요를 개관하는 했는데,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과, 민요의 배경 및 제주도 민

요를 분류하고 각 요종마다 개설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좌혜경, “민요의 話者運用과 詩的效果”, 『한국민요학』, 한국민요학회, 1997.**

노래유형에 따른 화자유형을 단승과 복합화자로 구분하고, 여탄요에서 화자운용과 서사요를 중심으로 운용의 방법을 살폈다. 민요에서는 화자운용이 자유로워서 시적인 효과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데, 특히 노래의 현장성을 실감케 한다거나, 정서표출의 형식적인 구속력이 적어서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며, 시간, 공간에 대한 구속이 적어 자유롭게 시·공 표현이 가능할 수 있으며, 또한 사실이 동일시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좌혜경, “ 민요를 통해본 제주민의 세계인식”, 『백록어문』 13집, 백록학회, 1997.**

제주민요 밭돌, 방아노래 중에 나타나는 사설들을 분석하여 분류된 제재에 따라 삶의 제반현상과 인식론적인 가치들을 분석함, 여성노래에 나타난 제재는 1, 노래 혹은 소리에 대한 인식, 2, 남편과 첩, 3, 시집살이관, 4, 강남, 5, 이어도, 6, 인생관과 운명관, 7, 부모, 8, 자식관, 9, 형제관, 10, 서울, 11, 양반, 12, 官과 法, 13, 님, 14, 가난과 재물, 15, 노동과 근면, 16,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각 제재를 중심으로 나타난 인식을 살피고 있다.

**櫻井哲男(좌혜경역), “제주도 민속음악의 현대적 변용”, 『민요론집』, 제5집, 1998.**

제주도 민속음악의 현대적 변용의 양상을 음악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살핀 논문임. 우선 변용의 실태로서는 종목이 완전히 소멸된다거나 전승형태의 변화, 그리고 종목간의 이동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용의 배경에는 농촌생활의 근대화, 정보매체의 보급을 들 수 있고 특히 제주도에 들 수 있던 음악 장르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